I·SEOUL·U
너와 나의 서울

아카이브 서울 vol.3



서울지하철 1호선
18m 평면도가 불러낸
'오래된 서울'
문화예술작품 속 지하철

기록물 디지털화 장비 '스캐너'
'서울기록원이만난기록가'
김신지 작가
COVID-19 기록물 리뷰

공공기록물 '이관' 들여다보기
아키비스트의 기록수집 여정
카탈로그와 친해지기

기록, 서울처럼

서울기록원
SEOUL METROPOLITAN ARCHIVES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수집하고 그 안에 담긴 노력과 경험을
기록유산으로 관리하여, 시민과 함께 기록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건립된 서울의 기록관리 전문기관입니다.
서울기록원은 서울의 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만나는
세계적인 수준의 아카이브를 지향하며,
기록의 이관·수집, 기록물 보존·복원, 기록관리 교육,
전시 및 강연, 세미나, 워크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Seoul Metropolitan Archives (SMA) :
Home to the history of Seoul and its citizens

SMA preserves historical records and information about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s well as personal history of its citizens. Our mission is to foster civic life by preserving and providing public access to the historical records of the city and its citizens. We strive to ensure that the records are properly maintained following professional archival and record management practices. We provide home to a wide range of documents about Seoul and its citizens. We work to transfer and collect records, preserve and restore archives, provide education regarding archival management and research, arrange and host a range of events such as exhibitions, lectures, seminars and workshops, among others.

아카이브 서울 vol.3

기록, 서울천년

CONTENTS

「아카이브 서울」은 서울시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서울기록원'에서 발행하는 간행물로, 담아두기보다는 스치는 일이 더 많은 우리 일상과 사회에서 기억, 그리고 기록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콘텐츠입니다.

02 여는 글

FEATURE
대한민국 근대화의 표상 지하철 1호선의 기원을 찾아서

06 문서의 재발견
18m 평면도,
'오래된 서울'을 세상으로 불러내다

14 인포그래픽
데이터로 만나는 지하철 1호선&

16 기억과 현장
민원과 분투로 마침내 열린
'시민의 발 시대'
김영수 선생에게 듣는 '지하철 1호선 핫이슈'

20 인포그래픽
잡았다, 지하철 타임슬립!

22 외연과 내연
웃기고 울리고 놀래키고!
그 안에 지하철 1호선 있다
문화예술작품 속 지하철

28 인터뷰
"서고는 또 하나의
서울지하철 역사 보물창고"
서울교통공사 총무처 김미숙 문서팀장

31 인터뷰
지하철 1호선과 김수박 작가의
서른 살 추억

34 INFO
형형색색 거미줄 같은
지하철 노선도의 시작

36 서울기록원이 만난 기록가
기록으로 셀프 충전하고
소확성 챙기세요
김신지 작가

40 THE SPOT
알고 보면 문턱 낮은 '서울기록원 이용記'

42 IN-SIDE
공공기록물 '이관' 들여다보기
기록물도 이사한다?
서울 자치구 중요 기록물 이관 이야기

46 IN-SIDE
우리는 기록물을 받는 대신
믿음을 선물합니다
국회 아키비스트가 전하는 기록수집 여정

50 기록생활백서
'기록 길잡이' 카탈로그와 친해지기
카탈로그 타고 기록의 바다 항해해볼까

54 장비도감 '스캐너'
빠르게 많이 정확하게,
기록에 접근을 부탁해~

58 리뷰 'COVID-19' 기록물
재난은 결국 기록 속에서 재소환되기에!

60 칼럼 세스헤트의 천창
느끼지 못했을 뿐
아카이빙 역량이 자라고 있었다

62 이토록 작고 소중한 아카이브
덕업일치 경지 오른 '덕질 아카이브'

64 아카이브뉴스

66 찾아보기









여는 글

COVID-19
팬데믹 이후를 기획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든 분들과 직접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 시민이 찾아주셔야 빛이 나는 기관들도 활력을 잃었습니다. 서울기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5월 개원을 하고 이제는 지역 아카이브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져야 하는 기간 내내 코로나 여파를 맞고 있습니다.

서울기록원이 준비한 많은 프로그램들이 취소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시민들이나 기관·단체의 방문 견학, 시민들이 참여하는 각종 교육과 컨설팅, 기록하는 시민기록가를 위한 프로그램 중 많은 것들을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기념한 특별전시 '넘어넘어'가 시민들에게 충분히 다가가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아카이브의 전시가 어떤 것인지를 시민들에게 내보이고 평가를 받겠다는 애초 목표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난은 새로운, 아니 서울기록원이 언젠가는 가야할 길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계기였습니다. 그것은 기관의 운영과 시민이 만나는 방식이 디지털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그렇다고 직접 만나 소통하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눈앞에 닥쳐서 했던 일이지만 계획된 여러 사업을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했습니다. 방문 견학을 보완하는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해 제공하거나 'ARCHIVE & JOBS'라는 코너를 마련해 아카이브와 관련한 전문가나 시민기록가들이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기록원의 이러한 시도는 계속될 것입니다.

서울기록원이 시민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가 브랜드북 출판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인 〈아카이브 서울〉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들을 편하게 만날 수 없는 현실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갈증이 조금이나마 메워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았습니다. 이번 〈아카이브 서울 vol.3〉에서는 서울기록원 보존 기록인 지하철 1호선 평면도(약 18미터)를 비롯해 지하철 공사 추진 초기 기록물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또, 공공기록물의 이관 과정이나 기록물 관리를 위한 첨단 장비를 소개하고, 서울기록원의 다양한 활동을 정리했습니다. 서울의 일과 기록물을 설명하는 카탈로그 작성을 알리고, 시민기록활동가의 얘기도 실었습니다.

서울기록원은 SNS 등을 통해 보존 기록을 다양한 주제로 묶어 소개하는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소장 영상기록을 디지털로 변환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 더욱 힘을 내는 기록정보 서비스입니다.

이제 방역과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기가 끝난다고 해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겁니다. 미래로 생각했던 일들이 이미 눈앞에 있습니다. 아카이브에도 새로운 미래가 예상보다 훨씬 빨리 다가올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에 시민들과 어떻게 만나고 소통할지 쉬지 않고 고민하는 '진짜 로컬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 차분하지만 경쾌하게 가겠습니다.

2021년 6월
서울기록원장

아키비스트 조영삼

FEATURE__ 대한민국 근대화의 표상

지하철 1호선의 기원을 찾아서









18m 평면도, ‘오래된 서울’을 세상으로 불러내다

기록물로 재구성해보는
지하철 1호선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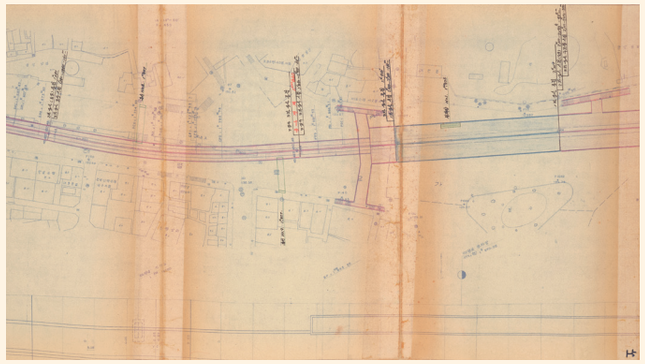
여전히 햇살 뜨거운 2019년 8월이었다. 석 달 전인 5월 공식 개원한 서울기록원이 조용하지만 꾸준히 준비해온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1968년부터 서울시의 중요 역사 및 행정자료를 보존·관리해온 청도문서고의 기록물을 서울로 이관하는 프로젝트였다.

이 과정에서 문서고에 잠들어 있던 한 기록물이 발견됐다. 누렇게 산화된 지질 상태를 보고 조심스럽게 확인하던 관계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다. 흥인문, 파고다 아케이드, 서울 종로2가 우체국, 종로구청 시민홀, 중소기업은행 종로지점, 파출소, 한국섬유시험검사소당시 삼화고속터미널, 분수대가 자리한 서울광장… 우리나라 최초 지하철인 1호선이 통과하는 구간에 있는 구조물의 위치와 형태, 도로 상태 등을 담고 있는 ‘지하철 1호선 평면도(이하 평면도)’가 새롭게 등장하는 순간이었다.

서울기록원 소장 최장 기록물의 발견

컴퓨터 같은 기기가 없던 시절, 모든 것이 ‘손으로 그려졌지만’ 화장실(W.C)부터 구조물 경계, 건물의 분할 상태와 환기구 위치까지 정교하게 담고 있는 평면도의 길이는 무려 18m. 2021년 5월 말 현재까지도 서울기록원 소장 ‘최장 길이 기록물’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평면도는 1970년대 ‘오래된 서울’을 깨워 다시 세상으로 불러냈다.

하지만 길게 연결된 지하철 노선도라 종이 여러 장을 접착한 뒤 기록하고 아코디언처럼 접어 보관해오면서 평면도의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다. 복원 전문가의 확인 결과 종이와 종이를 잇는 연결부 접착은 두 가지 유형이었다. 별도 종이에 접착제를 발라 연결부에 부착한 형태와 셀로판 테이프를 사용한 형태였다. 두 유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손상 결과로 나타났다. 당시엔 더 번거로웠을 종이로 연결한 부분은 작은 색상 변화 외 특별한 손상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테이프 이용 연결부는 점착 성분의 경화와 산성화로 앞뒷면 모두에서 뚜렷한 색상 변화와 갈색 반점을 보였다.



1

1
지하철 1호선 평면도 복원 후 모습
ⓒ서울기록원

2
지하철 1호선 평면도를 복원하고 있다. ⓒ서울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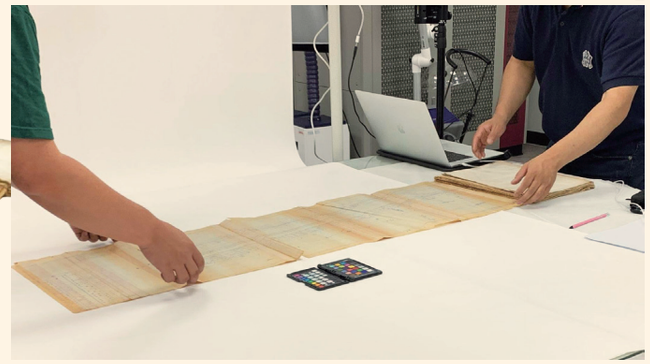
3
연결부에 테이프를 사용한 부분은 점착 성분의 경화와 산성화로 손상이 심각했다. ⓒ서울기록원

평면도 복원, 그리고 지하철 1호선 재구성

2020년, 서울기록원은 평면도가 간직하고 있는 시간과 기억을 복원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기록의 가치가 컸고 동시에 거칠게 남은 손상 부위는 이용자들에게 불편감을 줄 뿐 아니라 향후 보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었다.

평면도 복원작업의 시작은 기록물 상태를 확인하는 사진 촬영이었다. 일반적인 복원 처리 전 촬영은 전체 모습과 함께 여러 장의 문서나 서적일 경우 각각의 쪽, 이에 더해 필요한 경우 손상 부분이나 특이사항을 추가로 남긴다. 평면도는 길이가 18m에 달해 여러 차례 분할한 다음 연결하는 수정작업이 추가됐다. 이어 지질, 제작 시기, 내용 등 기록물에 대한 사전조사와 함께 복원작업이 진행됐다. 손상 부위의 테이프 성분을 최대한 안전하게 제거하고 기록물의 상태와 보존성을 고려해 접힌 부분을 안정적으로 연결하는 일이었다.

평면도 복원 전후의 변화는 사진으로도 잘 확인된다. 기록물을 덮고 있던 오염이 제거되면서 깨끗하고 또렷해졌고, 복원용 종이가 손상된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또 구김이 있던 부분이 고르게 펴져 기록물 내용도 한결 온전하게 전달되고 있다. 디지털화까지 마친 평면도는 이제 손상이나 위험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2



3



지하철 1호선 공사 주요 일정

- 1970.03.16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설치 조례 제정
- 1970.11.14 서울역-청량리 9.54km 노선 확정
- 1971.02.19 서울시 지하철 설계 완료
- 1971.04.12 서울시 지하철 1호선 착공
- 1972.04.12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계약
- 1972.08.12 지하철 참여 인력 교육훈련 착수(763명)
- 1972.09.12 지하철 1호선 시공에 따른 보상협의
- 1974.03.31 일본산 전동차 6량 서울역 도착(03.27. 부산항 입항)
- 1974.04.12 지하철 시운전. 이후 4천회 실시
- 1974.08.15 지하철 1호선 개통 서울시 지하철본부 발족

인구 폭발과 대중교통의 관계

공공사업 시행 때 고려되어야 할 주요 지장물시설물을 포함해 수목, 케이블, 상하수도관처럼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 매설된 설비까지 상세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지하철 1호선 평면도는 추진 초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평면도가 전하는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은 당시 정책 결정 과정을 보여주는 여러 기록물을 통해 더욱 흥미진진하고 풍부한 역사로 되살아난다.

도시의 대중교통 혁신은 대개 인구역학과 연동된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의 탄생 또한 1960년대 '인구 폭발'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해방 직후 100만 명 수준이던 서울인구는 1960년 244만 명으로, 이호철 작가가 〈서울은 만원이다〉라는 소설을 연재하기 시작한 1966년에는 379만 명으로 급증했고, 1970년에는 553만 명에 이른다. 일제강점기 내내 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이던 노면전차는 급증하는 서울 시민의 발이 되기엔 너무 느리고 낡고 작고 무력했다. 1960년대 들어 이 틈을 버스와 택시가 빠르게 메웠다. 그리고 1968년 11월 30일, 노면전차는 역사 속으로 퇴장한다.

하지만 '안 계시면 오라이~!' 여차장의 외침과 콩나물시루, 곡예 운전을 연상시키는 시내버스와 택시로는 서울의 인구 증가를 감당하기 역부족이었다. 서울시내는 수많은 버스와 택시가 얽혀 오도 가도 못하는 교통지옥이 일상이었고 시민의 불만과 언론의 고발이 끊이지 않았다. 지하철 건설 논의는 이런 현실을 비집고 고개를 내밀었다.

건설하면 나라 망한다 VS 안 만들면 서울부터 망한다

"지하철 건설하면 나라 망합니다."

그러나 지하철 논의는 곧바로 망국론에 직면했다. 1인당 총소득 255달러, 국가 재정도 기술력도 빈약한 현실을 외면한 무모한 계획이라는 비판이었다.

"지하철 안 만들면 서울부터 망합니다."

반면 1966년 부임한 철도청장 출신 양택식 서울시장의 판단은 확고했다. 첫 시정보고 자리에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지하철 건설의 시급성을 설명한 양 시장은 1970년 초 기자회견을 열어 지하철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또 자체적으로 3월 16일 지하철 공사를 담당할 조직 설치 근거인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11월 중순에는 서울역부터 청량리에 이르는 9.54km '종로선현 지하철 1호선' 노선을 확정했다. 그리고 선진 현장 견학, 측량, 지질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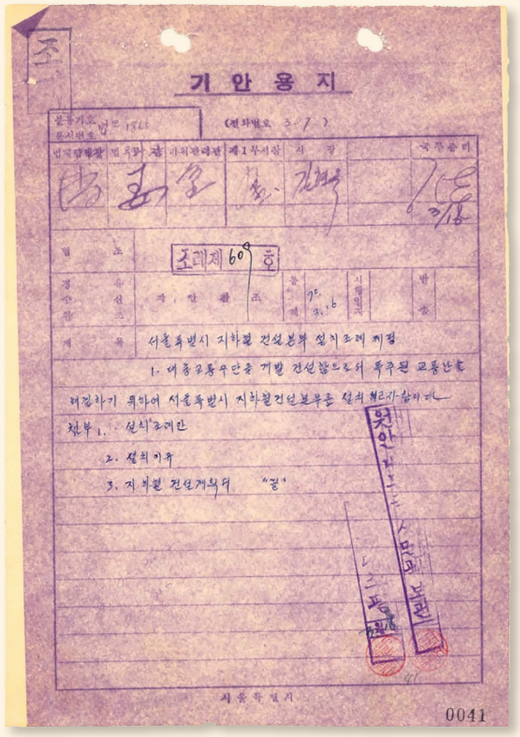
4

4
1960~1970년대 서울의 교통 상황을 알 수 있는 장면. 출처는 tbs 영상기록 시간을 품다 중 '대중교통의 신기원 서울지하철 1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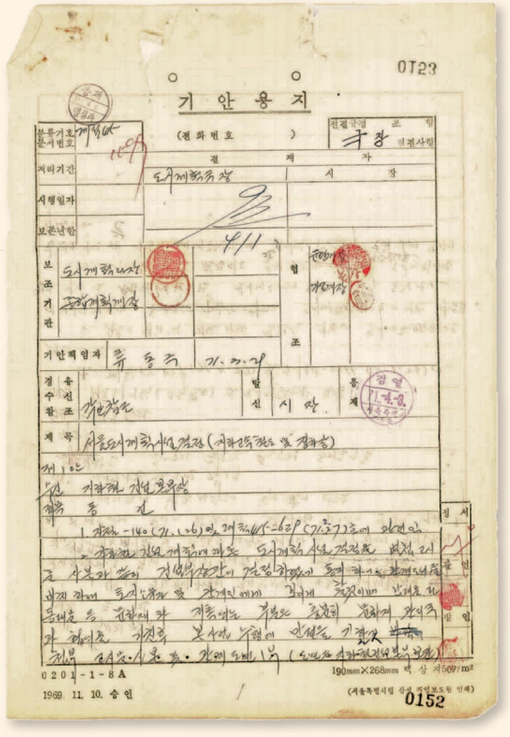
5
서울지하철 건설계획 발표 기자회견
1970년 ©서울역사아카이브

5





1970년 3월 16일 ©서울기록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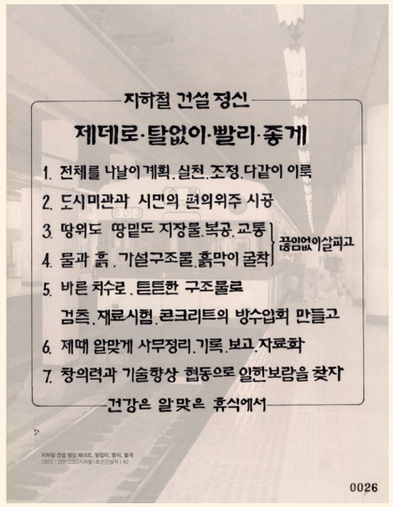
1971년 4월 3일 ©서울기록원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설치 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설치 조례' 제정을 공식화하는 문서이다. 이를 통해 수립된 기구가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였다. 최초 조례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의 사업범위는 크게 4가지 분야였다. 지하철(전철) 건설계획설계공사, 노선책정 및 주차시설, 지하철 건설을 위한 자금수급계획, 기타 지하철 건설에 수반되는 사항이었다. 이후 지하철 운영과 추가 건설을 위해 조례는 개정되었다. 이를 통해 지하철건설본부는 2기 지하철인 5·6·7·8호선 건설까지 주관했으며, 이후 지하철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가 설립되기 전까지 서울시 지하철 건설과 운영을 도맡았다.

서울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고속철도 및 정차장)

지하철1호선 정차장은 1971년 3월 26일자 건설부의 최종 결정에 따라 확정되었다. 이로써 현재 서울역부터 청량리역에 이르는 지하철 1호선의 역사가 결정됐는데, 역명이 지금과는 다소 달랐던 것을 알 수 있다. 역명은 '서울역-시청앞-화신앞-종로3가-종로5가-동대문-신설동-제기동-청량리동'이었다. 지금의 종각역 대신 당시 종로1가와 2가 사이에 위치했던 '화신백화점(신신백화점)'의 명칭을 차용하여 '화신앞'으로 불렸다.



6

6
지하철 건설 정신,
제대로·탈없이·빨리·좋게
1970년 | (891230) 지하철 1호선
건설지

7
서울지하철 착공식
박정희 대통령 참석 기념 연설
1971년 ©국가기록원



7

등을 거쳐 이듬해인 1971년 4월 12일 드디어 역사적인 지하철 1호선을 착공한다.

수백억 지하철 건설 비용을 확보하라

착공 당일, 공사 시작을 알리는 시동 버튼을 누르자 신호처럼 시청 대한문 앞에 마련된 22톤급 대형 해머 5개가 일제히 H형 파일을 박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오색 연기와 5천여 개의 고무풍선이 하늘을 향해 날아올랐다. 서울 거리 곳곳에 지하철 착공을 축하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우리 손으로 풀어간다'는 각오를 내건 지하철건설본부는 '건설정신'도 제시했다. '제대로·탈없이·빨리·좋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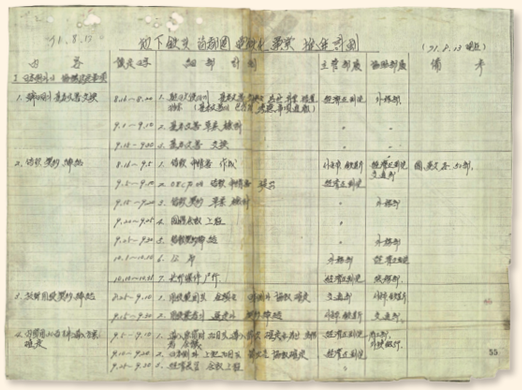
한편 지하철 착공을 전후해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재정문제였다. 지하철 건설이 미뤄진 이유도, 공식 발표 후 회의적인 시각이 사라지지 않았던 바탕에도 3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건설비용이 있었다. 정부와 서울시는 공채 발행과 일본 차관 도입을 추진했다. 서울시는 2월 3일 수도권 고속전철차관 제안서를 제출했고, 일본 정부는 종합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조건으로 차관 공여에 응했다. 1972년 4월 7일 국무회의 의견을 거쳐 4월 10일자로 주일대사와 협정을 체결했다. 이렇게 확보된 지하철 1호선 건설 비용은 서울시 예산 100억원, 국고보조 및 공채 51억5000만원, 일본의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을 통한 3만4320달러 등이었다.

불편, 불만, 민원, 마찰, 조정, 공방… 난관을 극복하라

해법을 찾은 비용문제는 곧 본격적인 고난의 시작을 의미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모든 처음이 그렇듯 대한민국 최초의 지하철 건설공사는 난관의 연속이었다.

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은 예상된 일상, 여기에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만이 아니라 인근 건물에 금이 가고 기우는 사고가 줄이어 발생했다. 공사 구간 및 정차장 공사에 방해가 되는 땅과 지장건물 보상문제를 비롯해 문화재위원회와 마찰, 고층 건물을 피하기 위한 노선 변경, 전기시스템 결정 공방, 하천을 지나기 위한 7겹 방수처리 등 선로를 만들면서 시도한 수많은 공법… 하나하나가 산 넘어 산, 만만찮은 시험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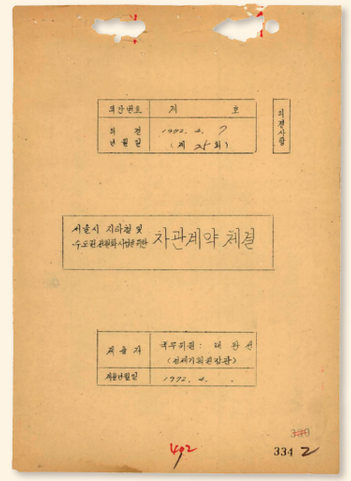
다행히 중대한 인명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최고의 성과였다. 1972년 8월 중순부터 지하철 운영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이 추진됐고, 1974년 3월 27일 일본산 전동차 6량이 완전 조립된 상태로 부산항에



1970년 8월 19일 ©서울기록원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 추진계획

세부적인 차관 공여 일자와 공정 일자를 포함하고 있는 문서로 지하철 건설과 관련된 자금과 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최초 기록이다. 이 기록물에 따르면 기록물은 이를 통해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위한 한·일 양국 간 종합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됐고, 같은 해 8월 25일 일본으로 건너간 양택식 시장과 정부 요인들이 지하철 1호선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차관교섭을 진행할 것이라 기재하고 있다. 이후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verseas Economic Cooperation Fund, OECF)과의 정식 차관계약은 1972년 4월 10일 체결되었는데, 최대 차관 금액은 272억 4000만엔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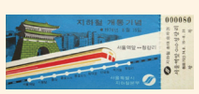


1972년 4월 12일 ©서울기록원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계약

1972년 4월 12일자 차관계약 문서에는 해당 차관계약을 위해 경제기획원에서 국무회의에 제출한 '서울시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 사업을 위한 차관계약 체결' 내용과 국문 및 영문으로 별도 작성된 '국유철도 전철화 및 서울시 지하철 건설을 위한 차관계약서'가 수록되어 있다. 차관계약서 내용은 지하철 건설 및 전철화 사업의 세부 내용과 재정계획 등으로 이뤄져 있다.

승차권의 변화



1974~1986년
매표원이 직접 판매한
에드몬슨식 승차권
종별·도착역 표시



1986년 9월 10일~1998년
역무자동화에 맞춘
마그네틱 승차권



1998~2008년
IT기술 반영, RF(Radio Frequence, 무선주파수)시스템 교통카드
티머니 등 통합형 교통카드시스템



2009년~
1회용 교통카드시스템 도입
마그네틱 승차권 전면 폐지

입항했다. 서울사진아카이브가 서비스하는 사진기록에는 당시 베이지색 바탕에 붉은 띠를 두른 20m 길이의 전동차가 크레인으로 옮겨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담고 있는데, 대단한 장관을 목격하는 듯 신기하고 놀라는 표정까지 읽을 수 있다.

148명이 승차할 수 있는 크기로 최대 속도가 110km까지 가능한 전동차는 4박5일 동안 경부선을 달려 31일 서울역에 도착했다. 실제 개통이 가시권으로 들어온 것이다.

"오래 살다보니 참 신기한 것도 다 봅니다"

착공 후 꼭 3년 만인 1974년 4월 12일부터 시작해 총 4000회에 이르는 시운전을 마친 지하철 1호선은 마침내 1974년 8월 15일 오전 11시 30분 역사적인, 그러나 뜻밖의 개통식을 치른다. 엄청난 공사에 걸맞은 축하와 시끌벅적한 개통잔치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개통식 직전 당시 광복절 기념행사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가 저격당해 숨지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침통한 분위기에서도 새로운 문물을 마주한 서울시민들은 흥분과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의자는 고급 융단으로 꾸며졌고 문은 자동으로 닫히고 천장에는 선풍기가 도는 '호화 전동차'를 탄 승객들은 피서 온 것 같다며 즐거워하고, 9개 역을 18분 만에 주파하는 속도에 감격을 감추지 못했다.

"30초면 닫히는 문, 어물어물하다가는 못 타겠어요."

(성일여중 3년 권진영 학생)

"오래 살다보니 참 신기한 것도 다 봅니다. 60년 전 개성에서 처음 기차를 보았을 때의 놀라움과 같은 것을 느낍니다."

(84세 김시경 할아버지)

지하철 1호선 공사에는 총 3년4개월 동안 연인원 282만6100명이 참여했고, 사용된 자재는 철근 4만2799톤, 레미콘 38만4000m^2, 케이블 23만5000m 등 179종이었다. 건설장비는 22만8500여대가 투입됐고 토목, 건축, 궤도, 전기, 신호, 통신, 차량 등의 분야에서 생산된 관련 설계도면만 1만3290장에 이른다.

지하철 1호선은 지금까지 도시개발과 교통인프라의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주택, 상권, 문화와 예술, 마케팅과 과학기술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시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울이라는 시공간 전반을 재구성하는 촉매제였다.



8



9



10



11

8
서울지하철 1호선 시청역 일원 공사 현장
1971년 10월 23일 ©서울사진아카이브

9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현장
1973년 ©서울역사아카이브

10
부산항에서 육지로 옮겨지는
서울지하철 전동차 1량 전경
1974년 ©서울사진아카이브

11
지하철 1호선의 개통을 축하하는
시청건물 현수막
1970년 ©서울역사아카이브

12
과거 전동차에는 더위를 식히기 위해
천장에 선풍기를 달아 가동했다.
©서울교통공사

13
승차권을 사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천태만상 유실물 사연들

(62)0067, (93)3689. 이는 지하철 1호선 구로역과 신설동역 유실물센터의 전화번호다. 지금도 지하철 유실물센터는 수많은 실수와 건망증이 남긴 흔적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데, 모든 것이 생경했던 지하철 개통 초창기엔 오죽했을까. 마음이 약해 생떼 쓰는 승객에게 돈을 물어준 안내방송원, 잃어버리지 말라고 양은 도시락에 넣어준 큰돈을 잃어버린 아이, 본의 아니게 비둘기를 키우게 된 역무원 등 개통 이후부터 1980년대까지 유실물센터 일지에 남겨진 절박하고 따뜻한 사연 몇 가지를 옮긴다. 2020년 발간된 서울기록원 전시콘텐츠 조사연구사업보고서 〈속력시대의 개막-지하철 1호선〉에서 추렸다.

돈이 없어졌다고 생떼를 쓰는 가방 주인에게 3만원을 물어줌
– 마음 약한 시청 앞 안내방송원 김형은(20세. 입대) / 1975년 가을.

중학교 1학년 아들에게 양은 도시락에 돈을 넣어 맡겼으나 아들이 청량리 매표소 창구에 두고 탐. 네 정거장이나 지난 종로5가역에서 이 사실을 안 아들 권군이 울면서 호소, 마침 청량리역 초소원 이안순씨가 역무실에서 이 돈 (당시로서는 큰 현금38만6천원이었다)을 찾아줌
– 이름을 밝히기 꺼려하는 권모씨(종로구 내수동) / 1976년 8월 2일.

동대문 시장에서 딸의 혼숫감을 사오다가 그대로 하차, 잃었거니 생각했으나 역무원의 연락으로 하루 만에 되찾음
– 청량리 D빌딩 사장 유모씨 / 1976년 날짜 미상.

월급날 아들에게 선물하려던 장난감을 되찾음.
– 1981년 날짜 미상

KBS 통해 방송까지 송출했으나 나타나지 않아 사무실에서 비둘기를 사육 – 1986년 3월.

1981년과 1986년 일지에는 유실물 건수가 각각 2460건, 2761건으로 기록돼 있다. 하루 평균 6~7건인 셈인데, 많은 걸까 적은 걸까. 1981년 기록에는 '엄마 손을 놓치거나 장난으로 지하철에 오른 아이'가 한 달 평균 20명이라는 내용도 눈에 띈다.

12



13



데이터로 만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지하철 1호선은 1974년 8월 15일 개통 이후 47년 동안 변함없이 서울의 중심을 관통하며 달리고 있다. 2019년 기준 지하철 1호선이 달린 총 운행거리는 약 9100만km이다. 지구 둘레 약 4만km로 환산하면 2275바퀴를 돈 셈이다. 서울시민의 웃음과 눈물을 지켜보며 오늘도 꿋꿋이 달리고 있는 지하철 1호선과 서울지하철을 데이터로 만나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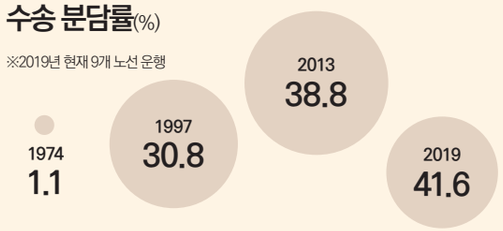
서울지하철 1호선 1974 vs 2019

	1974	2019
역 수(개소)	9	10(종로선 기준. 동묘앞역 추가. 수도권 전체는 98)
이용객(만명/일)	2.3	47.2
기본 운임(원)	30	1250(교통카드 기준)
차량 수(량)	60(6칸 10편성)	160(10칸 16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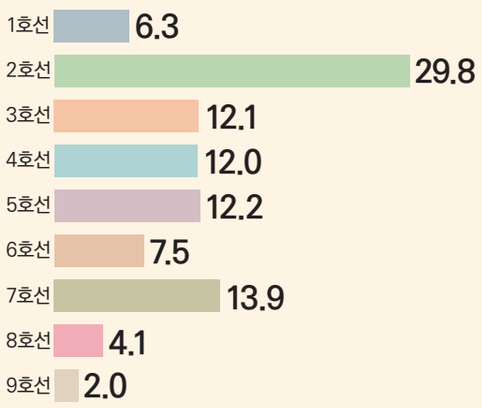
※ 2020년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여파로 전체 서울지하철 이용객 전년 대비 27.4% 감소

수송 분담률(%)

※2019년 현재 9개 노선 운행



서울지하철 노선별 수송 점유율(%)



역사 규모

최대 학여울역 / 2만8768m²
최소 까치산역 / 791m²

역사별 수송객 규모

최대 2호선 강남역-홍대역-잠실역 순
최소 9호선 둔촌오륜역-2호선 도림천역-신답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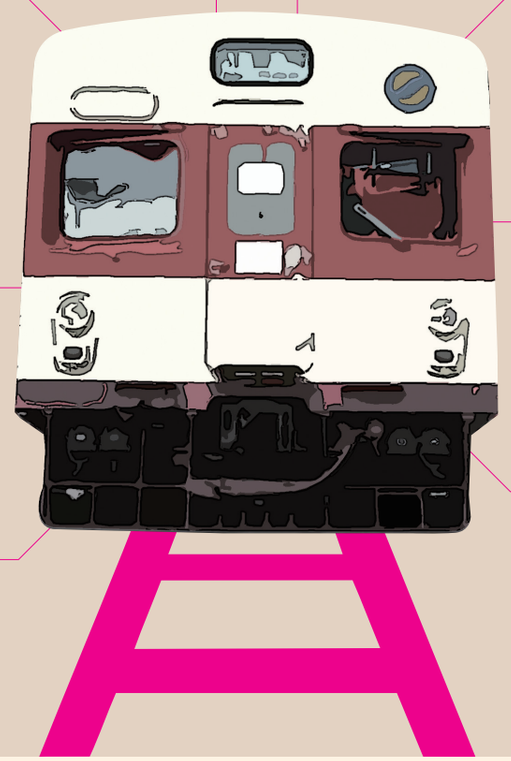
※ 출퇴근대 4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 이용객이 전체의 32.4%. 최대 수송 요일은 금요일로, 일평균 대비 117.1%

역간 거리 ( )는 호선

최단 0.6km인 동대문-동묘앞(1), 을지로4가-을지로3가(2), 신당-동묘앞(6)
최장 2.7km인 이촌-동작(4), 복정-산성(8)

환승역 거리 ( )는 호선

최단 우이신설선 성신여대입구역(4) 7m
최장 공항철도 홍대입구역(2) 355m



자치구별 운행 호선 및 역 수

최대 강남(6/33) - 송파구(6/29) - 중구(7/24) 순
최소 관악구(1/4) - 금천구(2/4) -

에스컬레이터 설치 수

최다 고속터미널역 24대
최소 부평구청역 9대

역사 깊이 ( )는 호선

산성역(8) 55.79m - 6호선 버티고개역(6) 45.75m - 숭실대역(7) 45.63m - 신금호역(5) 43.25m 순

※가장 얕은 역은 청량리역(1) 6.44m

각종 시설물 현황

엘리베이터 917대
에스컬레이터 2038대
승차권 자동 발매기 1105대

괭음, 금이 간 건물, 문화재 보호 공법…

민원과 분투로 마침내 열린 ‘시민의 발 시대’

김영수 선생에게 듣는 **‘지하철 1호선 핫이슈’**



1

“차량이 빈번히 다니는 노선을, 더욱이 진동도 있어서는 안 되는 정도의 정밀 측량이라 주로 야간에들 했어요. 정확한 노선을 입히기 위한 정밀 측량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자부하는 것이 그겁니다. 국내 기술, 우리 기술자들이 처음 하는 일이지만 그걸 소화해내서 훌륭한 성과를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롤러코스트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 1호선 건설 계획이 확정됐다. 사업을 추진할 서울지하철건설본부가 출범한 초기 참여 인력은 28명이었다. 철도청 출신 인력이 일부였고 상당수가 토목, 건축 등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던 서울시 기술직 직원이었다. 그중에 토목기술자 김영수 선생이 있었다. 1963년 서울시에 입사해 1990년까지 한강 교량 같은 대형 건설사업부터 도시계획 업무까지 굵직한 현장에 함께했다.

“설계를 확정 짓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일일이 다 검산하고 확인한 다음 오류를 찾고, 다시 다른 사람이 넘겨받아 좋은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을 서너 단계 거쳤어요. 당시 김명년 본부장도 기술직이라 철근 한 가닥 한 가닥, 더 들어가느냐 적게 들어가느냐, 빨간 펜으로 체크하고, 그것을 내려보내면 검토해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1호선 설계가 진행됐습니다.”

계산도, 설계도면 작업도 수작업으로 이뤄지던 그 시절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수많은 도전은 그 자체로 서울시 건설 역사에서 중요한 성취를 이뤘다. 착공부터 완공까지, 그 현장을 지키며 같이 호흡했던 그에게 당시의 뜨거운 논란, ‘핫이슈’를 들었다.



2



3

ISSUE 01

한밤을 깨뜨리는 날카로운 강말뚝 소리

지하철 터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상에서 땅을 깊게 파 내려간 뒤 흙이 무너지지 않게 디젤 해머로 직접 때려서 말뚝을 박아야 했다. 그 후 말뚝과 말뚝 사이에 두꺼운 나무판을 끼워 흙이 흘러내리는 것을 막았다. 엄청난 굉음이 발생했다. 이 작업은 차량이 다닐 때는 할 수 없어 한밤중에 진행해야 했고, 공사장 인근 주민들은 밤마다 굉음으로 인한 고통을 견뎌야 했다.

“차량이 다닐 때는 공사를 못해 한밤중에 그 말뚝을 디젤 해머로 때려 박았으니, 소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주변 주민들이 정말 참기 힘든 정도였습니다. 서울시는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홍보하는 수밖에 없었죠. ‘이 고비 넘기면 지하철이 생깁니다’ ‘시민의 발입니다. 참으십쇼, 참으십쇼~’ 그런 호소 밖에는.”



4

1
김영수 선생은 1963년 서울시에 입사해 1990년까지 한강 교량 같은 대형 건설사업부터 도시계획 업무까지 굵직한 현장에 참여했다.

2
1973년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종각역 구간 건설 현장 모습. 김영수 선생이 기증한 사진이다.

3
교통 혼잡 등으로 공사 현장 주변 시민들은 말 못할 고통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

4
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 모습 ©서울교통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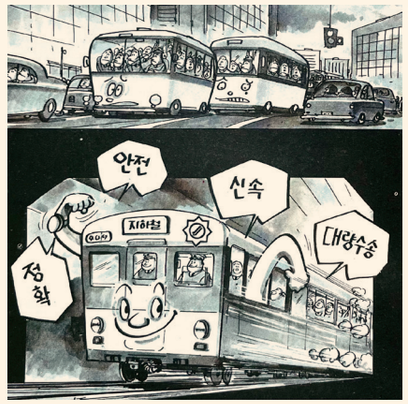
5



6



7



8

5
동아일보 사옥 옆을 비켜 돌아 급곡선 구간으로 건설되고 있는 현장. ©김영수

6
현재 지하철 서울역-남영 구간을 지날 때 전동차 실내 전등이 깜빡이는 것은 전기시스템에 따른 절연구간을 지나기 때문이다. ©위키미디어커먼스

7
숭례문과 동대문 주변 지하철 공사가 재개됐지만 문화재관리위원회는 제일 밑에 까는 고무판은 합격품을 쓸 것, 방진벽을 100m에서 130m로 늘릴 것 등 마지막까지 9가지나 되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교통공사

8
지하철이 열어갈 미래를 담은 만화 ©서울교통공사

ISSUE 02

종각 구간이 급곡선이 된 이유

당시는 지상에서 지하로 땅을 파 내려가는 개착식이 유일한 지하철 건설 공법이었다. 지상에 있는 장애물은 철거하면 되지만 세종대로 사거리에 있는 동아일보 사옥이 문제였다. 철거를 요구하기 어려우니 건물 지하로 통과시켜야 했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았다. 결국 종각역과 시청역 사이를 지날 때 열차가 동아일보 바로 옆을 급곡선으로 통과하기로 결정됐다. 종각역에서 시청역 사이 전동차가 마찰음을 내며 매우 느리게 통과하는 이유가 바로 급곡선 구간 때문이다.

그런데 얼마 후에는 우물이 문제가 됐다. 공사로 인해 동아일보 지하 우물물이 말라버린 것이다. 지하철 공사를 진행하는 터널의 바깥벽을 완전 방수로 처리했다. 지하철 터널 안쪽으로는 물이 들이치지 않고, 바깥쪽으로 하천이 흐르게 한 셈이었다. 지하철 공사가 끝나자 동아일보 우물물은 다시 차올랐다.

ISSUE 03

직류냐 교류냐 그것이 문제로다

우리나라 최초의 지하철에 어떤 전기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냐는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선택이었다. 당시 철도청은 수도권 전철의 전기를 2만5000볼트 교류로 사용하기로 했고, 전철과 구간이 이어지는 지하철 1호선도 그에 맞춰 교류방식을 채택하려 했다.

그때 체신부 전화국이 들고 나섰다. '귀하디 귀한' 전화 통신 장애가 예상됐기 때문이었다. 당시 서울은 교통만이 아니라 전화기 보급도 밀려 있었다. 전화는 청약접수를 넣고 추첨에서 당첨돼야 놓을 수 있었고, 설치까지는 다시 1년 이상이 걸려 전화 매매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용건만 간단히'라는 캠페인도 이때 나왔다. 체신부는 지하철을 교류로 할 경우 기존 전화 케이블을 모두 옮겨야 하고, 약 20억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 주장했다. 철도청도 물러서지 않았다. 지하철에 직류를 쓰게 되면 수도권 전철과 지하철이 마주치는 구간에 따로 전기 연결 장치를 설치해야 했다. 체신부와 철도청이 맞선 10개월, 30여 차례의 공방은 결국 국무회의까지 가서야 체신부의 판정승으로 끝이 났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가 지하철은 직류로, 철도는 교류로 쓰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치열한 공방 덕분에 국제표준을 맞춘 셈이 되었다.

ISSUE 04

건물 기울고 단골 떨어지고

소음, 교통 혼잡 외에도 기존 도로 옆에서 지하로 파내려가는 굴착 공사는 지반이 약한 인근 건물에 영향을 미쳤다. 건물이 기울고 금이 갔다. 상인들의 고충도 상당했다. 공사 현장과 인도가 가까워 지하철 노선이 지나는 종로, 동대문시장, 신설동 로터리 등의 점포들은 줄어드는 고객으로 울상을 지었고, 아예 점포를 내놓는 경우도 부쩍 늘었다. 서울시는 공사 기간 내내 보상문제와 씨름해야 했다.

ISSUE 05

숭례문, 동대문을 보호하라

문화재 보호문제도 '역대급' 도전이었다. 지하철 1호선 노선 확정 후 문화재관리위원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다. 국보 1호 숭례문과 보물 1호 동대문 옆으로 지날 경우 공사는 물론 운행할 때 생기는 진동이 문화재에 손상을 줄 것이란 우려였다. 지하철건설본부는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문화재관리위원회의 강력한 항의로 3개월 만에 공사가 중단됐다. 우선 남대문 구간 기초 밑의 암반이 복병이었다. 암반을 제거하려면 화약을 이용한 굴착작업과 발파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의 폭발 충격이 걱정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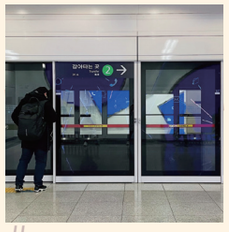
"암반을 발파할 때, 발파하는 곳에 화약을 넣고 뇌관을 집어넣어서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한꺼번에 화약이 터질 경우 진동이 너무 커 순차적으로 폭파돼 진동을 최소화하는 지발뇌관을 써야 했어요. 발파할 때는 진동계를 비치해 폭발 영향도 점검하며 고비를 넘겼죠. 동대문도 유사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다행히 암반이 나오지 않아 사정이 조금 나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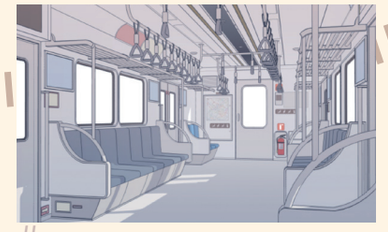
문화재 두 곳은 잘 보존됐고, 굴착과 발파 공법 경험은 자산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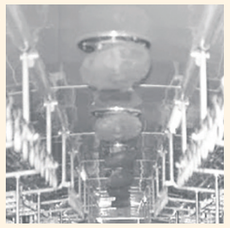
잡았다,
지하철 타임슬립!

사진 서울교통공사











1 실내에 선풍기가 보이는 옛 서울지하철 전동차 모습

2 새로 만든 차량의 냉방설비

에어컨, 지하철 최고의 복지&민원

지하철 최고의 민원은? 바로 에어컨 온도이다. 지나치게 춥고 덥다는 불만은 상대적으로 불쾌지수가 높은 여름에 급증한다. 선풍기만으로도 신기해하던 때를 지나 서울지하철에 냉난방시설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84년 개통한 2호선 전동차부터다. 현재는 가동 기준이 있지만 외기 온도나 실내 온도를 고려해 승무원이 조절할 수 있는데, 승객이 또타지하철 앱이나 문자 신고로 특정 열차 칸의 온도 조절을 요청하면, 접수한 콜센터에서 운전사령실로, 다시 승무원에게 전달하는 체제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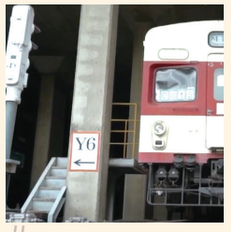
스크린도어, 모두에게 안전문이길

서울지하철에는 2019년 말 현재 일명 '스크린도어'로 불리는 승강장 안전문이 2만472개가 설치돼 있다. 2002년 인천역 시범 설치 후 조금씩 늘다가 승강장에서 고의로 떠밀거나 실수로 승객이 선로에 빠지는 안전사고와 자살사고가 늘면서 빠르게 보편화됐다. 현재는 승강장 안전문 설치가 의무화돼 있고, 전동차로 인한 소음과 먼지는 물론 승강장 내 냉난방 효율, 선로 보호장치 역할도 하고 있다.
이외에 서울지하철은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 엘리베이터 917대, 에스컬레이터 2038대 등 편의시설을 갖췄다.

커지는 신체 따라 넓어지는 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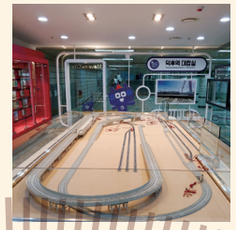
1974년 개통 때 지하철 1호선의 좌석은 7인석, 자리당 넓이는 약 43cm였다. 당시 성인 남성의 평균 허리둘레 74cm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울시민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면서 2015년 성인 남성의 허리둘레는 86cm로 늘어났다. 옷이 두꺼워지는 겨울이면 특히 좁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있었던 것. 다행히 노후 전동차 교체사업으로 현재 7인석에서 6인석으로 바뀌고 있는 중이다.





덕후역이 있다고요?

2019년 5월 30일 7호선 반포역 지하 1층에 지하철과 철도를 주제로 이름도 톡톡 튀는 '덕후역'이 등장했다. '덕후역 대합실'에서는 지하철 전동차 등 철도 모형을 볼 수 있는데, 서울교통공사 사당 별관에서 보유하던 작품을 옮겨 시민들이 감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버튼을 누르면 실제로 움직인다. 평시에는 시민 휴게 공간이지만 필요하면 사전 예약을 거쳐 지하철과 철도 '덕후'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된다.



서울미래유산인 1호선 역사들

지하철 1호선은 2020년 '8월의 미래유산'으로 선정됐다. 1974년 개통 이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근대화를 상징해 보존 가치가 높다고 평가받은 것이다. 사진은 제기동역에 부착된 서울미래유산 명판. 아울러 국내 최초로 도입돼 서울을 달린 전동차 '101편성' 또한 역사적 가치를 평가해 현재 신정차량기지에 운행 당시 모습으로 보관되고 있다.

바쁜 도시, 유실물도 많아라!

노선이 9호선까지 늘고 이용 인구가 증가하면 유실물도 많아진다. 시청역, 충무로역, 왕십리역, 태릉입구역 등 4곳 유실물센터에 회수된 2020년 유실물은 11만3106건으로, 하루 평균 310건.(2019년 13만9615건에 비해 감소한 것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한 승객 감소 때문으로 분석) 유실물 중 7만6903건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간 인계율은 68%였다. 종류는 지갑(21%, 2만3933건), 가방(18%, 2만438건), 휴대폰(17%, 1만8670건) 순이고, 특이하게 결혼식 방명록, 보자기에 싸인 영정사진도 있었다.(다행히 모두 주인에게 돌아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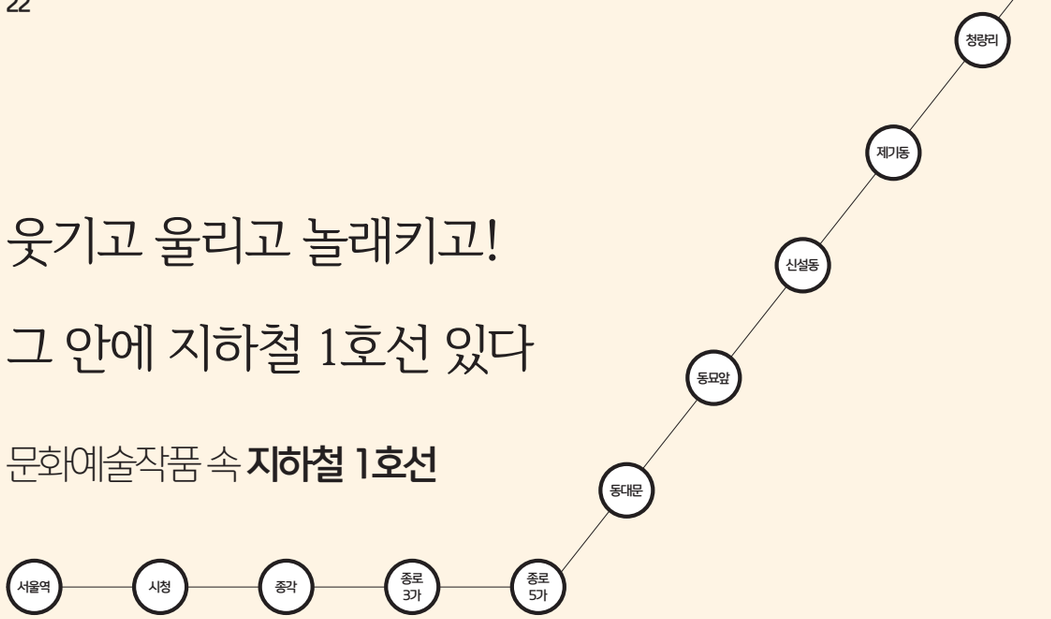
지하철 기록부터 정보까지, 궁금하면 여기

서울지하철의 과거와 현재가 궁금한 시민을 위해 다양한 곳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우선 서울교통공사 누리집 내 웹진http://webzine.seoulmetro.co.kr은 다양하고 일상적인 서울지하철 소식을 전하고 있고,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SeoulMetro'에서는 1971년 지하철 1호선 착공 당시의 사진기록부터 안전이나 이벤트, 에티켓 등 다채로운 기록과 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지하철 역사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과 서울기록원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웃기고 울리고 놀래키고!

그 안에 지하철 1호선 있다

문화예술작품 속 **지하철 1호선**



이미지 출처 : 한국영상자료원 KMDB

지하철 1호선은 언제나 그 도시에 전에 없던 역동을 일으킨다. 새롭고 편리한데다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이동수단의 출현은 그 자체로 도시민의 환호와 발길을 부르는 매력적인 상품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 번에 실어 나르는 '승객 규모'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요금까지 저렴한 지하철은 시간이 흐르면서 이동수단을 넘어 마케팅, 문화예술 공간으로 진화하고 더 많은 교류와 소통을 주고받는 '교통交通 공간'으로 자리잡는다. 그리고 시민의 삶 속에 뿌리내린 지하철은 자연스레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의 발아장소 역할을 한다.

이는 서울지하철 1호선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역부터 시청 앞역-종각역-종로3가역-종로5가역-동대문역-신설동역-제기동역-청량리역으로 이어지는 9개 '선배 역'들은 오래 달린 만큼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품은 마당이다. 무료한 표정으로 몸을 맡긴 사람들을 쉬지 않고 내려놓고 저 어둠 바깥으로 멀어지지만, 누군가는 또 그 마당에 멈춰 서서 무언가를 조금은 특별하게 기록하고 있다. 지하철 1호선을 주제와 변주로 삼은 영화, 소설, 만화, 회화, 음악이 그 결과물들이다.

록뮤지컬
〈지하철1호선〉 포스터
ⓒ학전



〈지하철 1호선〉

뮤지컬 | 김민기 연출 | 1994

독일 연극 〈1호선〉을 한국 배경에 맞게 각색한 뮤지컬 작품이다. 애인을 찾아 서울에 온 연변 여성부터 부동산 투기꾼, 접대부, 가짜 대학생 등 지하철에 오른 다양한 인간군상이 분단 현실, 빈부격차, 도시의 빛과 어둠, 외환위기, 노숙자문제 등 시민이 발딛고 사는 세상과 이웃의 현실을 생생하게 그려내 오랜 기간 호평받았다. 20세기와 21세기를 관통하는 한국 사회를 고스란히 포착하고 보존해 놓은 예술적인 아카이브로서 의미가 큰 작품이다.

만나고 헤어지는 이야기가 담긴 지하철 1호선

no.0150 서울역

서울역은 서울의 첫 관문이다. 살러 오든 놀러 오든 서울을 드나드는 사람들은 먼저 서울역으로 와서 번져 나간다. 그래서일까. 영화나 소설 속 서울역에도 오가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 이야기가 넘쳐흐른다.

1974 별들의 고향
영화 | 이장호 감독



1994 서울의 달
드라마 | 정인 연출



2002 로드무비
영화 | 김인식 감독



2005 친절한 금자씨
영화 | 박찬욱 감독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출소한 뒤 복수를 위해 서울로 온 금자씨는 처음 서울역에 섰다. 지금은 독보적인 장르물을 만드는 감독으로 유명하지만 당시 스크립터로 활동했던 이경미 감독이 서울역 촬영 뒷이야기를 전한다.

"(박찬욱) 감독님이 특별히 서울역이라는 장소를 고집하지는 않으셨다. 다만, 출소한 금자가 처음으로 서울에 온다면 당연히 서울역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셨다. 촬영 첫날 첫 신이다 보니 현장에는 설렘과 어색함이 가득했다. 지금 생각해도 흥분이 된다. 촬영은 두 시간 만에 끝나고 금방 이동했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촬영 대기 중에 2층 파스쿠찌에서 커피와 빵을 먹던 배우 이영애 씨와 그런 이영애 씨를 새로 산 파노라마 카메라로 열심히 찍으시던 박찬욱 감독님, 그리고 그 옆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던 내가 또렷이 기억난다."

※ **출처** 〈영화가 사랑한 서울촬영지 100선〉. 서울영상위원회. 2012

2016 부산행
영화 | 연상호 감독



2016 서울역
영화 | 연상호 감독

2016 아가씨
영화 | 박찬욱 감독

2019 서울역
소설 | 장준혁



헤어진 남녀가 12월 21일이 되면 만나기로 약속한 그곳. 주인공 주희는 준민을 사랑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헤어지게 된다. 부산으로 도망치기 위해 서울역에서 만나기로 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이마저도 실패한다. 어렵게 연결된 수화기 너머로 준민이 주희에게 말한다.

"혹시 우리가 못 만나게 되더라도 매년 이날, 난 이곳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거야."

no.0151 시청역

1974년 개통 당시 이름은 '시청앞'이던 것이 1983년 2호선과 연결되면서 지금의 '시청'으로 바뀌었다. 하루 10만 명이 이용하는 크고 복잡한 역이다. 시청역을 나서면 탁 트인 서울광장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다. 건너편으로는 덕수궁 대한문과 옆으로 난 돌담길, 정동으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산책길이 있다. 수많은 인파로 복잡한 역사 안에서, 집회와 행사가 끊이지 않는 광장에서, 고즈넉한 산책길에서 냉정과 열정 사이를 오가는 이야기들이 스멀스멀 피어오른다.

1990 ●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대중음악 | 동물원



시청 앞 지하철 역에서
너를 다시 만났었지
신문을 사려 돌아섰을 때
너의 모습을 보았지
발 디딜 틈 없는 그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를 땐
넌 놀란 모습으로 음음음
너에게 다가가려 할 때에
난 누군가의 발을 밟았기에
커다란 웃음으로 미안하다
말해야 했었지
살아가는 얘기 변한 이야기,
지루했던 날씨 이야기
밀려오는 추억으로
우린 쉽게 지쳐 갔지

2006 ● 다세포소녀
영화 | 이재용 감독



2009 ● 꽃보다 남자
드라마 | 전기상·이민우 연출



2010 ● 도쿄택시
영화 | 김태식 감독

2013 ● 응답하라 1994
드라마 | 신원호 연출






1994년 하숙생 '삼천포'는 서울역에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시청역에서 내려 2호선으로 갈아타고 신촌역에 내려 하숙집에 찾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촌놈'에게 서울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신촌역 지하도를 헤매다 결국 택시를 탔으나 '아불싸' 바가지 기사를 만나고 말았다. 서울을 한 바퀴 돈 뒤 바가지를 옴팡 쓰고서야 도착한 하숙집, 엄마가 미리 보내 놓은 폭신한 솜이불 속으로 몸을 뉘인 삼천포. 안도와 서글픔이 묻은 밤이 깊어 간다.

서울의 첫 번째 밤. 그 포근하면서도 서걱거리던 이불의 감촉과 뜨거우면서도 서늘했던
그 밤의 공기를 난 아직도 기억한다. 1994년의 서울이란 내게 딱 그랬다. 분주하지만 외롭고
치열하지만 고단하며 뜨겁지만 차가운 도시. 그리하여 정말 정말 속을 알 수 없는 도시.
우린 당당히 서울 시민이 되었지만 아직 서울 사람은 될 수 없었다.

2017 ● 문영
영화 | 김소연 감독



2017 ● 특별시민
영화 | 박인제 감독



지나간 시절 낭만과 현재진행형의 유희가 함께 담긴 공간

no.0152 종각역

조선이 한양으로 도읍을 옮겼을 때 이곳에 시전이 설치되고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였다고 하여 '운종가雲從街'로 불리다가, 이후 보신각이 있는 큰 도로라 하여 '종로鐘路'로 불리는 동네. 지하철 1호선은 이 길과 나란하게 뚫려 있어 개통 당시에는 '종로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종각역과 맞닿은 광화문광장, 인사동, 종로3가역과 맞닿은 낙원상가와 세운상가, 단관극장 단성사, 종묘, 그리고 뒷골목들과 종로5가역을 둘러싼 광장시장, 방산시장, 평화시장, 약국 거리는 서울의 오랜 정취와 역사적 현장, 묵은 기억들을 소환하는 메타포이다.

no.0153 종로3가역

no.0154 종로5가역

1997 ● 접속
영화 | 장윤현 감독



2005 ● 그때 그 사람들
영화 | 임상수 감독



2009 ● 인사동 스캔들
영화 | 박희곤 감독



2009 ● 전우치
영화 | 최동훈 감독



2010 ● 의형제
영화 | 장훈 감독



2016 ● 죽여주는 여자
영화 | 이재용 감독



2021 ● 빈센조
드라마 | 김희원 연출

2021 ● 종각역
소설 | 김영민 지음



신비롭고 독특하고 은밀한 이야기가 담긴 공간

no.0155 동대문역

동대문역 계단을 오르면 만나는 동네가 창신동이다. 옛 돌산 채석장 자리에 들어서서 이름도 없이 그저 '돌산 밑'으로 불리던 곳이다. 지금도 그 흔적 그대로 남아 화강암 절벽 아래 아슬아슬하고 경이롭게 들어선 집들은 옥상이었다가 어느새 마당이었다가 반지하 방이었다가 옥탑방이었다가 한다. 이런 굴곡진 공간은 세상 가장 밑바닥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머무는 집으로, 다시 그 속에서 가장 다정한 사랑이 싹트는 마법의 공간으로 변화무쌍하게 변신한다. 이 공간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여전히 삐쭉빼쭉한 바위가 건재한 야성의 동네 모양과 꼭 닮아 있는 듯하다.

2010 ● 시크릿 가든
드라마 | 신우철·권혁찬 연출

2011 ● 최고의 사랑
드라마 | 박홍균·이동윤 연출



드라마 〈시크릿 가든〉,
〈최고의 사랑〉 등 여러 작품에서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는 창신동

2016 ● 도깨비
드라마 | 이응복 연출



드라마 〈도깨비〉에서 극중 인물
'써니'가 사는 집

no.0156 신설동역

신설동역은 지하철 1호선 최초의 환승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신설동역은 처음 만들어질 때 5호선을 염두에 두고 승강장을 추가 건설했으나 지하철 노선계획이 변경되면서 기능을 상실한, 일명 '유령역'이 설치된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둡고 차갑고 낯선 공간이 된 덕분에 창작자들로 하여금 새롭고 놀라운 상상과 꿍꿍이를 가능하게 한다.

2009 ● 아이리스
드라마 | 김규태·양윤호 연출

2010 ● 아테나:전쟁의 여신
드라마 | 김영준·김태훈·황정현 연출



드라마 〈아테나:전쟁의 신〉
촬영장에서 정우성 배우가
열연을 펼치고 있다.

2015 ● Lightsaber
뮤직비디오 | 엑소EXO

2016 ● 치어업
뮤직비디오 | 트와이스TWICE





아이돌 그룹 트와이스의
'치어 업' 뮤직 비디오에 담긴
신설동 유령역 모습과
처음 건설된 모습 그대로 47년째
멈춰 있는 유령역

2019 ● 사이코메트리 그 녀석
드라마 | 김병수 연출



숨겨왔던 생활력이 저절로 뿜어져 나오는 공간

no.0157 제기동역

no.0158 청량리역

추석이니 설이니 명절이 가까워지면 동대문구 제기동에서 청량리까지 이어지는 길이 사람과 차로 넘쳐난다. 제기동역과 청량리역 사이에 자리한 경동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도매업자들과 제수음식을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사람들이 한데 어울려 성시를 이룬다. 청량리역은 중앙선과 태백선, 영동선, 경춘선, 강릉선 등 우리나라 동쪽을 연결하는 관문이다. 물건과 사람이 드나들며 일으키는 활기가, 땅에 굳건히 발을 딛고 힘쓰며 살아가는 생기가 구석구석에 묻어나는 공간이다.

1992 ● 내일은 사랑
드라마 | 윤석호·이영희·전산 연출



1999 ● 우리가 정말 사랑했을까
드라마 | 박종 연출



2003 ● 여름향기
드라마 | 윤석호 연출



2009 ● 키친
영화 | 홍지영 감독



영화 〈키친〉에서 주인공이
처음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 속
경동시장

2010 ● 시크릿 가든
드라마 | 신우철, 권혁찬 연출



드라마 〈시크릿 가든〉에서
주인공이 운영하는 백화점이
청량리역에 자리하고 있다

2011 ● 최고의 사랑
드라마 | 박홍균·이동윤 연출



드라마 〈최고의 사랑〉에서
주인공이 한약방 리포트를 하고
있는 경동약령시장

2016 ● 대배우
영화 | 석민우 감독



“서고는 또 하나의 서울지하철 역사 보물창고”

서울교통공사 총무처

김미숙 문서팀장



대표적인 지하철 편의시설 중 하나인 에스컬레이터는 2호선과 함께 등장했다. 가만히 있어도 절로 움직이는 이 획기적인 ‘상하 자동 이동 계단’이 가장 먼저 설치된 곳은 역삼역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실제로 유명세를 탄 곳은 단연 이대역이었다.

지금이야 깊이가 40m 넘는 지하철 역사가 많지만 2호선이 개통한 1984년만 해도 27m는 ‘아찔한’ 심도였다. 그곳에 대합실에서 승강장까지 승객을 ‘모시는’ 에스컬레이터가 놓이자 ‘이대앞’은 더욱 북적였다. 이미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핫플레이스’인데다 대학가여서 유동인구가 많은데, 여기에 ‘신문물’을 구경하러 오는 시민들까지 가세했기 때문이었다. 1980년 7월에 입사해 서울교통공사 ‘최고참’ 직원 중 한 명인 총무처 김미숙 문서팀장은 당시를 이렇게 기억한다.

서울지하철 사보에 소개된 ‘인기 사원 김양’

“개통 첫날부터 에스컬레이터 제일 위쪽인 대합실과 아래쪽 승강장을 오가며 안내를 맡았어요. 이대 역사 운영 준비를 위해 한 달 전부터 개통요원으로 파견돼 일하고 있었거든요. 시민들은 신기해 하셨지만 전 직원이 초긴장이었어요. 혹시 사고라도 나면 큰일이니까요. 예술작품 같은 벽화도 인기였어요. 지하철역 자체가 새로운 문화공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 팀장에게 이대역이 각별한 것은 강렬한 개통일의 추억 때문만이 아니다. 사보 ‘서울지하철’ 1985년 5월호에는 ‘다방면의 업무를 친절하고 원활히 수행해 동료는 물론 많은 여대생의 사랑을 받는’ 인기사원으로 ‘김미숙양’을 소개하고 있다.

“입사해 현 1호선인 ‘종로선’ 제기동역에서 근무했어요. 각 역에 여성 역무원이 한명 뿐이던 시절, ‘~양’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었죠. 시간이 느껴지죠? 하하. 이후 한양대역, 이대역, 신사역에서 잇따라 개통요원이자 역무원으로 일했고, 그 뒤로 뚝섬역과 한성대역 역장, 고객서비스본부 콜센터 센터장 등을 지냈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산증인’이나 다름없는 이력을 증명하듯 기억을 더듬을 때마다 사연이 뚝뚝 묻어난다. 하지만 오늘 김 팀장을 찾은 것은 ‘지하철 기록’ 때문, 무수한 생생 이야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자.

조직 통합 맞춰 체계적인 기록관리 요구

서울지하철 1~8호선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로 나뉘어 있다가 2017년 5월 31일 안전 강화와 업무 효율을 위해 통합 출범했다. 거대한 두 조직의 통합이었던 만큼 후속 작업도 방대했고, 그중 하나가 ‘안전하고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였다. 김 팀장은 통합을 앞두고 총무처 문서부장으로 발령났다.

“공사 기록물은 3곳에서 관리해오고 있었는데요. 인사기록 등 활용도 높은 기록은 본사 기록물정보센터에서, 지하철 1~4호선 기록물은 사당서고, 5~8호선 기록물은 청담서고에서 보존·관리되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 차원에서 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기록관리 전문교육도 지원했고요.”

통합은 더 거시적이고 체계적인 기록관리에 대한 고민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전제되어야 했다. 기존 서울메트로의 운영공간이던 사당 별관의 기록물 파악 작업이 추진됐다. 김 팀장은 만만찮을 것이라 예상한 문제들이 속속 현실이 됐다고 전했다.

“전자결제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었지만 엄격하게 관리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된 겁니다. 예를 들면 업무 내용을 인쇄물로 출력한 다음 편철해 사용하던 직원이 다른 곳으로 발령받으면 그대로 두고 이동하는 식이었죠. 부서 캐비닛마다 그렇게 쌓인 인쇄물이 꽤 많았어요. 기록물과 인쇄물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기록물 선별 위해 부서 담당자 42명 참여한 TFT 운영

문서팀은 두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우선 ‘기록의 날’을 정해 직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부서별 담당자 42명으로 구성된 ‘비전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화 추진 TFTTask Force Team’을 꾸렸다. 책임자를 두고 진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와 일정에서 부서별 편차를 줄이도록 한 것이다.

TFT 활동은 거의 두 달 동안 진행됐고, 이어 분류된 결과를 문서팀 직원 4명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즉 처리과의 의견, 전문요원의 심사, 최종 평가심의에서 확정하는 과정을 통해 ‘검증된’ 보존 기록물은 데이터베이스화되고 사당서고로 옮겨졌다.

여기까지가 1단계라면 2단계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통합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서고 정리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전반적으로 기록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정보공개 요구도 빠르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작업이었다. 이 결정에는 김 팀장의 의지도 작용했다.

“일상 업무를 하다보면 정리작업은 미뤄지기 쉬워요. 솔직히 저도, 문서팀도 엄두가 안 났지만 사명감이랄까요, 기록관리 업무를 하다 보니 서고만큼은 제대로 정리해 인수인계하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사당서고의 경우 중요 기록물이 옮겨졌지만 여전히 철제 앵글이 어지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안전사고도 걱정됐고요.”



1


2


3

2년에 걸쳐 대대적 정리 마친 서울지하철 서고

2019년에는 청담서고 기록물이, 2020년에는 사당서고 기록물이 집중적으로 정리됐다. 특히 1단계 보존 기록물을 옮겨온 사당서고는 전체를 거의 재배치하는 수준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기록관리 업무 담당 직원 3명을 이끌며 사당서고 정리작업 전반을 챙긴 최진 과장은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했다.

"질서 없이 몰아놓은 것과 다름없는 실물 기록물 양도 양이지만 재배치는 처음이라 부서별로 할지, 생산연도별로 할지 기준을 세우는 것도 막막했어요. 부서 의견을 받고 전문업체와 논의해가며 분야·부서별 정리 기준을 세워 기록물과 목록을 대조해 갔는데, 선별하고 편철해 재배치한 결과물이 5만2000권에 달했습니다. 주요 기록물은 만약의 재난에 대비해 대피시키기 좋은 위치로 옮겼고요. 저기 정리된 모빌렉이 그 결과입니다. 엄청 고생했는데 지나고 나니 수입에 의존하던 과거 전동차 차종이나 부품 관련 기록처럼 신기한 기록을 직접 볼 수 있는 귀한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일복' 많은 공사 총무처 문서팀이라 남은 과제도 여럿이다. 아직 디지털화 과정이 필요한 '지류 기록물'이 상당하다. 더욱이 시민과 지하철 기록의 만남을 연계하는 일도 꾸준히 고민해야 할 내용이다. 이는 그 초석을 놓은 김 팀장의 바람이기도 하다.

"우리가 일하는 곳이 보물창고이기도 하더군요. 기록 콘텐츠를 활용하면 시민들과 지하철의 역사와 미래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4

1
1985년 5월호 서울지하철 사보에 인기사원으로 선정된 김미숙 팀장

2
서고에는 아직 디지털화가 필요한 지류 기록물이 적지 않다.

3
사당서고 모빌렉 모습

4
2년에 걸쳐 서울지하철 기록물 보존 서고 정리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 김미숙 팀장과 최진 과장(가운데), 그리고 정보공개 담당 박미경 차장

사람의 '곳'이 되어 준 지하철

지하철 1호선과 **김수박 작가**의 **서른 살 추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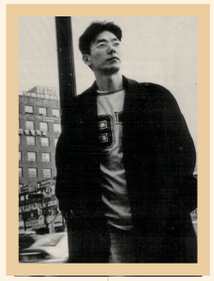


여기, 1974년에 태어난 한 남자가 있다. 그는 대구에서 태어나 자랐고 대학까지 다녔다. 별일 없으면 그곳에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리라 예상했다. 그러다 1997년, 그가 졸업해 세상에 나설 즈음 외환외기가 터졌다. 지역에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2000년대 초 그는 서울로 왔다. 그때 그를 가장 먼저 맞은 것은 서울역, 그리고 그처럼 1974년 세상으로 나온 지하철 1호선이었다. 만화가가 되려고 서울로 온 그는 세상의 이야기에 눈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코를 벌름거리고 있던 터였다. 그런 그에게 서울역, 지하철 1호선은 강렬하고 충격적인 공간이었다. 거기 살고 있던 사람들은 미처 몰랐던, 차라리 이방인이었기에 더 민감하게 감각할 수 있었던 지하철 1호선의 풍경. 그 강렬한 감각을 쓰고 그려서 2004년 <사람의 곳으로부터-지하철 1호선 이야기>에 담아냈다. 이것은 그 남자, 만화가 김수박이 처음으로 펴낸 책이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을 타고 다니며 겪은 일을 책으로 펴내셨어요. 지하철 1호선은 작가님에게 어떤 곳이었나요?

제게 서울의 첫인상이 서울역이었어요. 무척 충격적이었어요. 어릴 때 '서울 가면 눈 뜨고 코 베 간다'는 말을 듣고 자랐거든요. 서울 사람들은 잘 살고, 새침데기고, 사기도 잘 친다고요. 그렇게 서울은 저에게 '잘나가는 곳'이라는 등식이 있었죠. 그런데 가장 잘 살 거 같은 곳에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이 드러누워 있는 노숙자들 풍경인 거예요. 서울역 역사 안이며 광장, 지하철로 가는 통로 여기저기에 노숙자들이 그야말로 넘쳐났어요. 외환위기는 1997년에 터졌지만 사람들이 바로 망한 건 아니에요. 버티고 버티다 결국 거리로 나앉기 시작한 것이 2000년대 초부터였죠. 그땐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렇게 내몰린 사람들이 서울역에, 지하철에 있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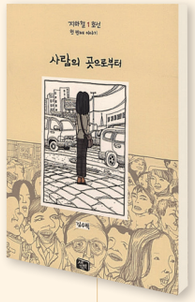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지하철 1호선에서 만날 수 있었어요. 지하철 1호선 노선이 인천에서 동두천까지잖아요. 군인, 구로공단 노동자,



1974년에 태어난 김수박 작가



1974년에 태어난 지하철 1호선
ⓒ서울교통공사



2004년 책 〈사람의 곳으로부터-지하철 1호선 이야기〉

이주노동자, 노숙자, 열차 안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이니 그 '민낯'도 가장 많이 만나게 되고, 동시에 '기회'가 많이 생기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하철 1호선은 인간의 본질을 만나고, 사람이 모인 곳의 본질을 목격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강렬한 인상을 받았다고 해도 누구나 기록하고 작품으로 남기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그리고 쓰게 만든, 기록하게 만든 어떤 것이 지하철 1호선에 있었겠지요?

저는 만화가가 되려 했으니까 서울 와서 처음 마주한 생경함, 강렬한 인상을 먼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작가로서 그다음 이야기를 못 할 거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물론 혼자만의 느낌은 아니었을 거예요. 특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분명히 느꼈을 테지요. 그런데 뚜렷한 기록을 남긴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원래부터 여기 살던 사람들은 무감각하고, 지역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그걸 기록으로 남길 만한 여유가 없는 시절이었고요.

〈사람의 곳으로부터-지하철 1호선 이야기〉는 지금의 그림체와 달리 과장되거나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괴기스럽기도 합니다.

저는 되게 재미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는데요.(웃음) 책 속의 '백만 송이 장미'라는 에피소드에서 주인공이 노숙자 아주머니인데요. 서울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물건을 막 팔더라고요. 근데 아이를 업은 아주머니가 아무 설명 없이 꽃을 그냥 줘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 바퀴 돌면서 꽃을 다시 수거하거나 돈을 받는 거지요. 저는 방식이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 아주머니가 먼저 꽃을 선물하고 그 화답을 받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장미 백만 송이를 선물해야만 그립고 아름다운 별나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외계인이 아닐까 상상했어요. 실제는 상당히 무례하다 이해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판타지를 표현하다 보니 그림이 다소 비현실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같아요.

현실에 기반하였기에 가능했던 판타지였네요. 작가님은 대부분이 돌아보지 않는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셨어요.

저는 심지어 SF장르도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어요. 팔팔 날아가는 그림만으로 이루어진 작업이라면, 그래서 현실과 끈이 없으면 그냥 사라지고 마니까요. 어떤 시대를, 그 시대에 있었던 어떤 일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게 제 작품의 목적이에요. 지금 당장은 관심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책은 세상에 남잖아요. 언젠가 어떤 필요에 의해서 누군가는 보겠지 하는 마음입니다.

쉬 보지 않는 곳을 보고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 르포 만화가로서, 어떤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길 것인가에 대해 나름의 기준이 있을 거 같아요.

사람들은 누구나 답을 찾고 싶은 거, 궁금한 게 있어요. 꼭 큰일이 아니어도요. '그때 엄마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그때 오빠는 왜 나를 옥상으로 불러올려 한참을 쳐다보았을까?' 하는 아주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이라도 계속 궁금함으로 남는 건 언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답을 찾아야 되거든요. 저도 작가 이전에 사람으로서 물음이 생길 때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해 왔던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운명적으로 꼭 해야 되는 이야기,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일을 만나게 돼요. 세상은 끊임없이 세워지는 와중에 무너져 가고 엉망진창인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또 내 길을 가야 돼요. 그럴 때 내 발걸음을 도무지 놓아 주지 않는 것, 도저히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그런 것들은 이야기해야겠죠. 마침 제가 그걸 표현하는 도구를 가진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이고요.

작가 김수박이 2004년에 만난 지하철 1호선에는 한국 사회 전체가 휘청거렸던 경제위기의 흔적이, 그때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태의 인간 군상들이 여과 없이 담겨 있었다. 동시에 바닥을 치고 튀어 오르려는 생명력,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는 강렬한 의지, 새로운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웃기고 다행한 일상이 있었다.
개통 후 48년 동안 멈춤 없이 90억 명 넘는 사람들을 실어 날랐다. 저마다 어떤 순간에 만난 지하철 1호선에 대해 기록한다면 우리는 90억 개가 넘는 지하철 1호선 이야기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김수박 작가의 기록은 그 어마어마한 이야기의 한 사람어치이자, 도도한 역사를 풀어낸 또렷한 발자국이다.



김수박 르포만화 작가.
〈문밖의 사람들〉 〈사람 냄새〉 〈떠날 수 없는 사람들〉 등의 저자





노선도, 혁신 디자인을 만나 나침반 되다

형형색색 거미줄 같은 **지하철 노선도의 시작**

외출 전 스마트폰 지하철앱을 연다. 몇 초 만에 이동 경로부터 열차 도착 예정시간, 소요시간, 최단거리 환승구간 같은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그런데 불과 10년 전만 해도 가장 활용도 높은 지하철 이용 도구는 수첩이나 다이어리에 인쇄돼 있던 여러 색깔로 구분된 거미줄, 아니 다이어그램 노선도였다. 지하철앱으로 한결 편해졌다지만 다이어그램 노선도는 여전히 기본값으로 맹활약 중이다. 덜어냄으로써 구현된다는 디자인 혁신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로 꼽히는 지하철 노선도의 시작을 추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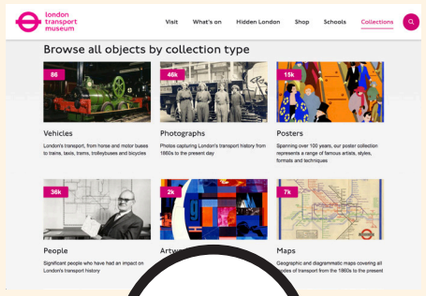


세계 최초 다이어그램식 런던지하철 노선도

1863년 1월 운행을 시작해 지하철 역사의 시조로 불리는 영국 런던은 노선도에서도 선구자였다. 런던에 메트로폴리탄선이 처음 개통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하면서 지하철은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으로 자리잡았고 노선도 다양해졌다. 필요는 가이드를 요구했고, 초기 지하철 노선도는 지도 위에 노선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스팅모어F. H. Stingemore라는 이가 1927년 디자인한 노선도였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한계점이 속속 드러났다. 환승역의 경우 지명과 노선이 얽히기 십상이었고, 실제 거리를 반영하다보니 구불구불 어수선해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다 1931년 런던교통의 제도공 해리 백Harry Beck이 새로운 노선도를 제출한다. 처음엔 생략과 왜곡이 심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수정을 거쳐 1933년 선보인 포켓사이즈의 노선도는 역명과 방향을 간결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혁신적 디자인이었고, 이후 런던지하철 노선도는 많은 나라와 도시에서 표준이 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ltmuseum.co.uk/collections/collections-online/maps/item/1999-321 ©LfM



런던교통박물관, 튜브맵의 역사를 한눈에

한편 최초 다이어그램 지하철 노선도 기록을 서비스하고 있는 런던교통박물관은 대중교통사와 관련해 다양한 기록과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이기도 하다. 당연히 지하철 관련 전시와 컬렉션도 상당한데, 컬렉션 중 하나인 'Maps'에서 해리 백이 디자인한 튜브맵을 비롯해 이후 업그레이드 버전, 초창기 튜브맵도 볼 수 있다. 좀 더 쉽게 찾으려면 컬렉션 필터를 통해 'tube'나 'underground'로 검색범위를 좁히면 된다.

이 밖에도 런던교통박물관 컬렉션에서는 말과 모터버스, 기차, 택시, 트램, 트롤리버스, 자전거 등의 교통수단Vehicles, 1860년대부터의 교통 역사를 담은 사진Photographs, 교통 관련 포스터Posters, 교통 역사에 영향을 준 중요한 사람들People, 유명 예술가의 포스터, 지도 및 차량 디자인을 위한 삽화Ephemera, 교통수단을 포함하는 지도Maps, 인증서, 일지, 편지 및 라이선스를 포함한 행정 문서Archives, 유니폼Uniform 등 지난 200여년 동안 런던 대중교통이 실어 나른 기록을 접할 수 있다.

출처 : https://www.ltmuseum.co.uk/collec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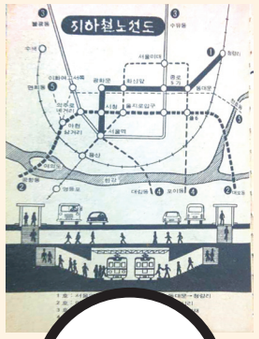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뉴욕지하철 노선도

미국 보스턴과 뉴욕은 세계에서 2, 3번째 지하철 역사를 가진 도시이다. 특히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지하철노선을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이기도 한 뉴욕지하철 역은 무려 472개, 그만큼 노선도도 복잡할 수밖에 없겠다.

1904년 개통된 뉴욕지하철에 대한 역사와 정보는 MTAThe 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웹페이지http://web.mta.info/nyct/110Anniversary와 뉴욕지하철 사이트https://www.nycsubway.org/를 방문하면 뉴욕지하철 노선도 변천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기록으로서 첫 뉴욕시 지하철 노선도는 해리 벡의 런던노선도 다이어그램 방식을 참조해 1958년 조지 살로먼George Salomon이 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58년 조지 살로먼이 제작한 첫 번째 뉴욕시 지하철 노선도
출처 : http://web.mta.info/nyct/110Anniversary/subwayMaps.htm



우리나라 첫 지하철 노선도는?

그렇다면 1974년 개통한 우리나라 첫 지하철노선도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현시점으로는 1970년 10월 촬영된 사진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노선도라 할 수 있다. 서울시 지하철 건설 계획이 한창 구체화되던 1970년 9월, 일본으로 선진국 사례를 직접 체험하고 연구하기 위해 떠난 조사단이 한 달 동안 현장 조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수도권 도시교통계획 조사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10월 '지하철 1호선 건설계획 및 수도권 전철계획'을 발표하며 사업이 공식화됐는데, 이때 1930년대 말 계획이 일정 부분 반영된 노선도(안)이 공개된 것이다. 런던이나 뉴욕 지하철 노선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조악한 수준이지만 최근 이용되는 서울지하철 노선도의 '화려함'을 고려하면 노선도야말로 세계적인 성취로 꼽히는 대한민국의 압축성장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다.

1970년 10월 정부가 발표한 '1호선 건설계획 및 수도권 전철계획'이 반영된 것으로 사진에 담긴 우리나라 최초 지하철 노선도, 1호선은 1930년대 말 계획이 일정 부분 반영된 모습이다. **출처:**서울교통공사

기록으로 셀프 충전하고 소확성 챙기세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

일상 속 '기록근육' 키우는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저자

김신지 작가







'기록'을 앞세운 책이 발간 두 달 만에 1만 부 이상 팔렸다! 뜨거운 반응의 주인공은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의 저자 김신지 작가. 트렌드 정보 배송 미디어 '캐릿'의 운영자이기도 한 그 또한 '신지둥절', 예상 밖의 결과에 놀라고 있는 중이다.

"기록은 꾸준하고 은근하게 발견되는 가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책이 기록방법을 많이 담고 있어 편하게 다가갈 수 있을까 싶기도 했고요. 기획할 때 조금 오래 꾸준히 발견해주시면 좋겠다 정도였는데, 넘치게 반겨주셔서 엄청 감사하죠."

시대를 막론하고 기록의 가치는 자주 언급돼 왔고, 최근 메모와 기록을 주제로 한 책이나 에세이집이 심심찮게 소개된 터, 솔직히 '차별성 없는 목소리를 보태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작지 않았다.

'신지둥절' 기록 책에 쏟아진 뜨거운 호응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삶이라던가. 2년째 전 국민, 아니 세계인을 파악조차 힘든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에서 파생된 현상 중 하나가 기록에 대한 관심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대면접촉 금지 등으로 이동이나 모임이 어려워지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채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 일상의 가치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는 와중에 기록이 소환된 것이다.

"지난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지나 소확성의 시대'라는 글을 발행한 적이 있어요. 젊은 세대 위주로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얻고 느끼면서 삶의 동기부여를 하고 '셀프충전' 하는 경향을 정리한 내용이었어요. 동기부여 도구로서, 불안을 해소하는 습관으로서 기록이 일상화되는 현상이 뚜렷하다는 걸 확인했거든요."

실제로 온라인에서는 '모닝미라클' 같은 루틴이나 챌린지, 감정일기쓰기나 제로웨이스트처럼 자기 동력을 만드는 일상의 습관을 말하는 '리추얼Ritual' 경험을 쓰고 공유하는 사례를 흔하게 만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진입장벽이 낮으면서도 고도화된 기록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십상인데 마침 김 작가의 〈기록하기로 했습니다〉가 '절묘한' 시기에 등장하면서 자연스레 주목도가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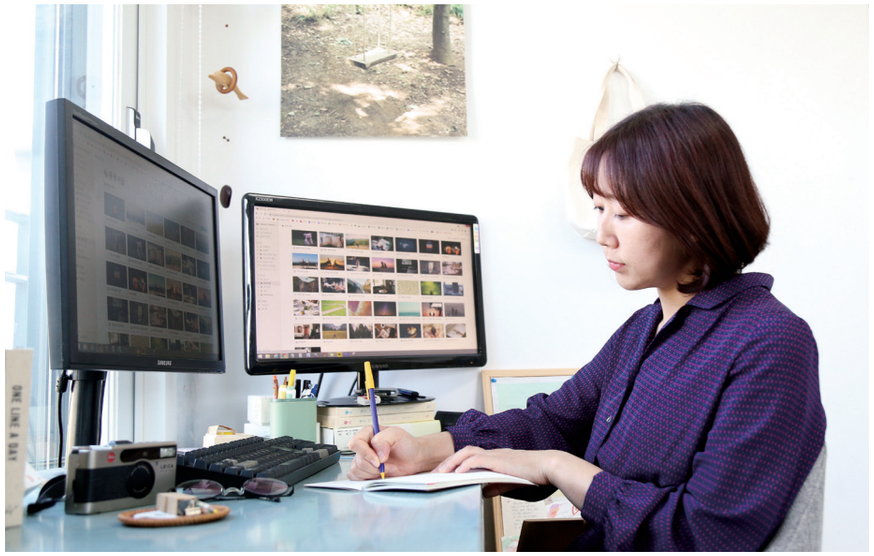
최고의 미덕은 뭔가 기록해보고 싶게 한다는 것!

하지만 어떤 상품이 기대 이상의 호응을 얻을 때는 '타이밍' 이상의 매력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기존 상품과 차별화되면서 독자의 마음을 얻는 장점은 책 초반부터 눈에 띈다. 자신의 경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공감을 느끼기 쉽고, 글의 구성과 매무새가 편안하고 따뜻해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쪽을 닫기까지 읽어내기가 수월하다. 여기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의 최고 미덕은 뭐니뭐니해도 독자 대부분을 '실천'의 길로 부드럽게 인도한다는 점이다. 이는 저자의 의도이기도 했다.

"일상을 기록하는 얘기는 제가 좀 잘할 수 있겠다 했는데, 기획 때부터 제일 중요하게 고민한 건 책을 읽고 나서 뭔가 해보고 싶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기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책을 읽고 나면 좋은데 자책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행동으로 못 옮길까, 의자가 진짜 약하구나 하면서요. 그래서 책 속의 '예를 들면' 페이지처럼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제 이야기와 함께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시각적으로 보여드려 따라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담으려 애썼어요. 참고가 있으면 하고 싶은 것도 잘 찾을 수 있거든요."

이를 증명하는 일화가 있다. 김 작가가 많이 듣는 후기가 책을 읽고 '5년 다이어리'를 샀다는 것, 그리고 일기쓰기를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란다. 더 놀라운 사례는 김 작가 스스로 가장 보람된 순간으로 떠올리는 부모님의 동참이다. 딸래미의 책을 읽은 부모님이 5년 다





이어리를 주문한 것이다. 현재 어머니는 소소한 일상을 대화체로, 아버지는 농부일지를 적고 계시단다. 아, 구매는 김 작가가 했다니 본의 아니게 '5년 다이어리' 마케터로 맹활약하고 있는 셈이다.

경험으로 확인한 일상기록법 대방출

이제 자신의 실전 경험, 습관화 과정 등을 대방출이라 해도 좋을 만큼 다양하게 정리한 김 작가의 일상 기록법을 알아볼 차례다. 총 22가지를 4개 장으로 나눠 담아낸 책의 첫 장은 기본적인 개인 기록 유형으로, 수많은 실패 끝에 일기쓰기 습관을 들이게 한 '한 줄 일기'와 5년 다이어리, 자신을 스치는 일희일비를 알아채는 '감정 일기', 한 달 혹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의식이기도 한 '결산노트' 등을 소개한다.

두 번째 나누는 주제는 '순간 수집'이다. 일상을 윤택하게 하는 건 드라마틱한 행운보다 사소한 아름다움임을 믿으며 하루에 하나씩 좋은 순간을 줍는 '1일1줍', 같은 장소에서 찍은 사계절을 모으는 '계절기록' 등 순간 기록으로 자신의 삶을 더 풍성하게 가꿔온 방법이다. 세 번째 장은 책이나 영화를 보다가 혹은 대화를 하다 감지한 '마음의 수면에 어떤 파동이 이는 순간'을 모은 '영감 수집'이다. 나를 일으켜준 문장들(내인생의문장), 에세이를 위한 글감들(글감수집), 이정표가 되어주는 문장들(문장서랍), 언젠가의 작업을 위한 '영감노트' 등의 방법은 이제 생활뿐 아니라 직업인으로서 작가에게 '든든한 자산'이기도 하다.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장이다. 부모님과 할머니의 목소리와 걸음, 미소를 남기고 인터뷰하기, 소중한 이의 손글씨를 모으고 기록하기 등으로 사랑하는 가족과의 귀한 시간과 기억을 저장해 두고두고 재생하며 되새길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는 기록법이다.

오래 익힌 습관 공유한 것… '기록의 달인'으로 비치지 않길

그렇다고 김 작가가 이 모든 방법을 '칼같이' 지키는 것은 아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으로 보이는 경의선숲길을 찍어 계절의 변화를 남기는 것을 시작으로 1일1줍을 거쳐 하루를 5년 다이어리로 마무리하는 정도가 '루틴'이고, 나머지는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편이다. 여기에 드는 시간은 합해야 5분을 넘지 않는다.

"사실 책 내고 저를 '기록의 달인'으로 보셔서 걱정이에요.(웃음)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별다른 스트레스나 의지력 없이도 가능한 매일매일 하는 걸 제외하면 필요하거나 생각날 때 해요. 다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다양하게 일상을 기록하는 게 가능한 건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일 거예요."

내친 김에 김 작가는 자신이 터득한 습관화 비법까지 공개한다. 첫째가 일단 목표를 무조건 작게, 이게 기록에 대한 계획인가 싶을 정도까지 잘게잘게 쪼개 잡을 것. 한 줄 일기나 기상하자마자 찍는 창가 풍경 한 컷 등처럼 말이다. 이런 소확성으로 동기부여를 지속하며 기록근육을 키웠단다. 또 행동을 방해하는 과정인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은 그가 가장 쓸쓸하게 도움받은 방법이다.

"방해요소인 허들을 낮추는 거예요. 한 줄 일기장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고요, 사진은 그냥 휴대폰으로 찍어요. 쉽게 할 수 있어야 오래 하고 습관이 될 수 있으니까요. 또 어떤 행동을 하는 '시작 신호'와 보상도 괜찮은 자극이에요. 제 시작 신호는 '자기 전'인데, 눕기 전에 일기를 썼나 점검한 다음 실천 후의 뿌듯함을 보상으로 챙기는 식이에요. 우리 뇌가 새 행동에 익숙하기까지 최소 21일, 습관화까지는 마법의 시간이라는 60일이 걸려요. 목표는 작게, 허들은 낮게, 여기에 신호와 보상을 더하면 어느새 기록생활습관이 배어 있을 겁니다."

기록은 미래의 선물

그리고 또 하나, 기록인에게 빠뜨릴 수 없는 질문이 바로 활용 노하우이다. 하루하루가 쌓인 수많은 기록은 한 알의 구슬 같은 메모와 달리 엮고 활용해야 가치를 키울 수 있다. 이를 위해 김 작가는 어떻게 분류하고 관리할까.

"제가 구슬을 꿰는 방법은 서랍 분류법이에요. 기록의 종류를 나눈 다음에는 해당 서랍에 집어넣기만 하자, 가위는 가위끼리, 노트는 노트끼리 수납법 비슷하게 넣어놓는 거죠. 서랍 자체가 분류인 셈이에요. 대신 고유의 이름을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같은 화분이어도 '동네식물'로 명명하고 찍은 다음 그 서랍에 넣어놓으면 연속성이 부여되는 효과가 있어요. '행복의 ㅎ'이라는 호명도 그래요. 사소하게 기쁜 순간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명명하고 좋은 순간이 스칠 때 '오늘치 행복의 ㅎ이구나' 하며 찍어요. 여운이 남는 문장을 모은 '문장수집'도 쌓이니 글감이 필요할 때 아주 유용해요. 이름을 붙인 서랍, 그에 따라 넣어놓기만 해도 활용도는 높아져요."

그걸 확인하기도 했다. 가족과 함께한 '사랑서랍'에 담긴 기록으로 인화서비스를 이용해 앨범을 제작하니 근사한 가족기록이 됐다.

"일상의 기록이 가진 최고의 쓸모가 아닐까 해요. 기록하려는 건 결국 미래에 선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자기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건 분명 멋진 일이 될 거예요."

김신지 작가가 추천하는 기록습관 들이기 가이드 BEST 5

일기쓰기가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5년 다이어리'가 딱!

거창한 걸 바라는 것도 아니요, 그냥 일기를 꾸준히 쓰고 싶은데 매번 실패한 분에게 추천해요. 정말 작은 의지로도 가능하게 구성돼 있어요.

일상을 돌보는 용도라면?

'1일 1줍' 부계정 어때!

자신의 일상을 돌보고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는 '1일1줍' 부계정을 만들어 그날그날 가장 좋았던 순간 하나씩만 기록해보는 연습을 권해요.

자기 업무를 발전시키고 싶다면?

'영감노트' 강추해요

이건 마케터이자 기록가인 이승희 님이 만드신 건데 '업'을 가진 모든 분께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글을 쓰고 싶은 분이라면?

'문장서랍'을 두세요~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보다가 '뻐때리는' 글귀를 만날 때가 많잖아요. 그때그때 정리해 자신만의 '문장아카이브'를 만들어 놓으면 지적 자극 '만렙'일 거예요.

모두에게 필요한 기록은?

'사랑하는 가족'의 모습을 남겨보세요

가족, 친구… 지금 사랑하는 이들과 시간은 유한하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남겨두면 무엇보다 자기에게 선물이 될 거예요.

알고 보면 문턱 낮은 '서울기록원 이용記'

동네아카이브 진행한 서울 토박이 **이승현 씨**

시도 혹은 도전은 일이나 꿈만이 아니라 관계나 덕질, 놀이의 출발에도 중요한 요소다. '어떤 것을 이뤄보려 계획하고 행동'하는 것부터 부닥치고 보는 '무작정 정신'까지 장착한 시도와 도전은 그 자체로 서로 연결하고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예비 문화기획가인 이승현 씨를 만난 배경도 그 연장선상이다. 2020년 그의 시도는 작지만 서울 청년과 동네아카이브를 잇고, 나아가 서울기록원과의 거리까지 좁힌 각별한 시작이었다. 서울시민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직은 문을 두드리는 이가 많지 않은 서울기록원을 '시의적절하게' 활용한 한 서울 토박이 청년 이야기를 소개한다.

1
'가장 개인적인 기록물' 모임 청년들, 그리고 서울기록원과 함께한 〈OO을 기록한다는 것〉 워크숍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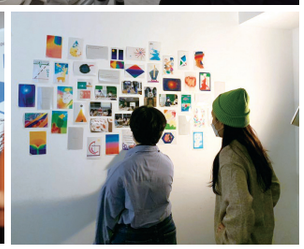
2
〈서울증(症) 치료: 가장 개인적인 기록물〉을 기획한 이승현 씨가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있다.

3
불광동, 천연동 등을 찾아 동네의 오늘을 기록한 청년들은 결과물을 동료들과 나누기도 했다.



1





2 3

청년들의 '서울증(症)' 치료하기

출발은 당시 은평문화재단에서 일하던 이승현 씨가 동료 청년들과 '서울청년센터(YC) 은평오랑(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서울시 청년들에게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종합지원센터로, 2020년 말 현재 9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이 주관한 '2020 청년 함께 알아가 봄' 공모사업에 지원한 것이 계기였다.

"작당이랄까, 퇴근 후 뭔가를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공모에 참여했어요. 웹드라마나 연극, 불광천 달리기 크루 양성 프로그램처럼 신선한 아이디어가 많았는데, 감사하게도 '서울증(症) 치료'도 선정됐어요."

서울증이라, 생소하다. 집값, 일자리, 외로움, 각박함… 서울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고충이 병의 증세를 일컫는 '증(症)'에 버금갈 정도라는 감각을 반영해 함께 조금이라도 덜어보자는 바람을 담은 작명이었단다.

치료법은 두 갈래였다. 지방에서 상경한 경우와 서울 토박이의 처지가 아무래도 다르니 두 팀으로 나눠 상경 청년은 아트 에세이를 통해 동병상련의 마음을 나누기로, 토박이 청년은 너무 많이 그리고 빨리 변해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내 꺼 같은' 고향 서울에 대한 복잡한 심경을 따라가 보기로 했다. 각각 '서울의 달'과 '가장 개인적인 기록물'로 명명된 프로젝트 중 토박이 이씨는 두 번째 모임 기획과 진행을 주도하는 쪽이었다.

갈아엎어진 동네, 사라지는 유년 시절

"유년 시절을 아현동, 염리동에서 보냈어요. 제게 고향의 원형 같은 곳인데 지금은 깨끗하게 사라졌어요. 어느 정도냐면 떡볶이집 같은 공간이나 언덕배기 같은 동네 풍경은 완전히 갈아엎어져 기억할 수 있는 골목 하나 찾아볼 수 없어요. 서대문구로 이사한 뒤에도 1년에 한두 번, 힘든 일이 있거나 바람 쐬고 싶을 때 살던 동네를 갔거든요. 근데 작은 흔적마저 남아 있지 않으니 너무 허탈한 거죠. 서울 토박이라면 아는 정서일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이나 살던 동네를 찾아 사진과 글로 남겨보는 동네아카이브를 통해 이런 상실의 마음을 보듬고 채워보자 했어요."

'어린 시절 추억을 찾아나서는 투어리스트'로 함께하자는 공지를 띄우자 참여자는 12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10월 중순, 이들은 첫 행보로 서울기록원 방문에 나섰다. 역시 이씨가 놓은 다리였다.

"기억이 인스타그램에서 공유하는 것과 뭐가 다른지 궁금했어요. 동네아카이브라는 개념도 낯설어 먼저 도시아카이브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야겠더라고요. 고민하다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무턱대고 서울기록원에 연락을 드렸어요. 은평구에 있어 이름을 들었던 터라 떠올랐던 거 같아요. 그런데 기대 이상으로 환대를 해주셨어요. 〈OO을 기록한다는 것〉을 주제로 워크숍을 마련해 주셔서 기록과 기억, 아카이브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고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는 추세라 공간 견학과 둔촌 주공 아파트 전시까지 볼 수 있었어요. 마침 참여자 중에 둔촌 주공 아파트에 살았던 청년이 있어 훨씬 생생한 관람이 됐고요. 약간의 용기가 필요하지만 역시 먼저 두드려야 얻는 것도 많아진다는 걸 다시 확인했습니다."

기대 이상의 환대, 아카이브 관심↑

이어 사진으로 도시를 더 잘 포착하는 방법을 배운 '가장 개인적인 기록물' 모임 청년들은 약 두 달 동안 불광동, 증산동, 천연동, 천호동, 종로와 삼청동 일대의 현재와 눈을 맞추고 시간을 담았다. 그리고 이씨는 '정말 좋은 기획이었다'고 자평했다. 참여자가 다양해지면서 동네



아카이브 개념에 충실하지는 못했지만, 경험을 중심으로 생각해온 기억을 지역과 공간으로 넓히는 기회가 됐고, 재개발이라는 이슈가 새삼 가까이 있는 느낌을 받는 등 다들 진한 감회를 쏟아낸 것이다. 게다가 이씨 자신은 더욱 특별한 경험을 한 터였다.

"잠깐 살았지만 어두운 기억이 많은 천연동에 갔을 때였어요. 노을 지는 풍경이 멋진 곳을 알고 있어 제가 안내했거든요. 사진을 찍으면서 제 속 이야기를 꺼냈는데, 순간 벅차오르는 거예요. 오래도록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네 풍경, 노을, 공감해주는 분들 모두가 저를 위로하는 듯 굉장히 치유받는 느낌이었어요."

단순히 결과가 아니라 주제와 과정, 활동을 아우르는 아카이브의 매력을 발견했다고 전하는 이씨는 앞으로 아카이브와 문화기획을 연결해보는 작업에도 관심이 생겼다. 그리고 덧붙이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서울기록원은 시민들이 기록과 관련된 일이나 관심이 있을 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전시나 열람 서비스처럼 취향에 따라 즐기면서 기록과 아카이브를 만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내돈내신', 아니 내 경험으로 추천하는 '내경내추'입니다."

기록물도 이사한다?


1


2


3

1
강북구청 허지원 주무관

2
영등포구청 백승혜 주무관

3
서울기록원 도착 후 강북구청 허지원 주무관이 확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소지 옮긴
서울 자치구 중요 기록물 이관 현장 이야기

"도로, 지하철, 공원, 랜드마크 건축물 등 저희 자치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록 콘텐츠는 이곳이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겪은 지역이자 공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어요. 이런 원 기록이 새로운 주제와 콘텐츠로 가공돼 서비스되면 고향 의식을 가진 구민들께 정말 특별한 문화 경험을 선물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치구 차원에서는 쉽지 않았는데, 서울기록원 이관 후 멋진 콘텐츠로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청 민원행정팀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승혜 주무관의 말이다. 언뜻 담담해 보이는 백 주무관의 이 소회 안에는 서울시 공공기록관리 역사에서 작지만 전에 없던 변화와 행보가 녹아 있다. 2020년 10월, 25개 서울시 자치구 중 단 두 곳 강북구청과 영등포구청의 중요 기록물, 즉 30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는 기록물이 처음으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서울기록원으로 '이사'를 하면서 관할, 그러니까 일정한 통제 권한이 옮겨진 것이다. 공공기록관리 전문용어로는 '기록물 이관'에 해당하는데, 이 사연을 알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대한 이해가 살짝 선행되어야 한다.

이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의 수

기록물 이관 업무가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역시 등의 장은 소관 기록물의 영구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조례를 제정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곧 시·도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여야' 한다. 반면 구청장을 비롯해 시장, 군수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은 보존연한 30년 미만 기록물을 관리하는 '기록관'을 설치해야 하지만 영구기록물관리기관, 즉 자치구기록물관리기관을 만들 수 있고, 나아가 필요하면 광역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는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일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는 것이다. 기록물관리기관은 일정한 기록물 관리 시설에 항균항습기 등 각종 전문 장비와 운영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한층 수위 높은 보존 환경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조건 하나하나가 만만찮은 비용 부담을 감수해야 함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 독자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는 곳이 없는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공공기록물관리법은 구청장이 구기록물관리기관을 운영하지 않을 시 소관 기록물을 시·도기록물관리기관에 반드시 이관할 것을 명시해 현실적인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열어두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 제로, 서울시 자치구의 속사정

여기까지는 법규와 관련된 부분이다. 이 때문에 딱딱하지만 명쾌하게 정리되는 측면도 있다. 자치구의 경우 규정에 맞게 기관을 설치해 중요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보존·관리할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지만 기록관리 현장에 현미경을 들이대면 한층 복잡한 단면들이 드러난다. 2019년 서울기록원이 문을 열기 전까지는 자치구에서 기록물을 이관하려 해도 여의치 않은 환경이었고, 개원 후에도 제대로 하려면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이관 체계를 잡고, 최소한의 시범사업이라도 거쳐야 본격화할 수 있기에 마냥 서두르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치구들의 속사정은 또 달랐다. 해가 갈수록 쌓여가는 기록물을 감당하기에는 확보된 서고가 태부족, 백승혜 주무관이 전하는 영등포구 서고 이야기다.

"영등포구가 서울 자치구 중에서도 오래된 곳이에요. 본청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정도라 추가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 서고가 네 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그중에는 옥상 가건물에 자리한 곳도 있어요.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지만 걱정이 되죠."

허지원 주무관이 소속된 민원행정팀이 관리 중인 강북구청의 서고 형편 또한 다르지 않았다.

"강북구 기록관의 경우 약간 고지대에 있어 항온항습 등의 환경 문제는 좀 나은데 장소가 뚝 떨어져 있어 일상 관리가 쉽지 않은 점, 특히 협소한 공간에 기록물 양이 점점 늘면서 건물이 받는 하중이 커져 기록물 이관문제가 시급한 현안이었습니다."

2020년 2월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 시작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면 공간 확충은 난망한 상황, 기록관리 담당자들은 자연 서울기록원에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2020년 2월 '아,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신호가 깜빡였다. 자치구의 고충을 파악해온 서울기록원에서 비전자기록물 이관에 대한 수요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한 시점이다. 이관 대상은 자치구에서 전산화작업을 완료하고 그간 비공개로 분류된 기록에 대해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공개재분류'를 완료한,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로 제한했다.

이에 근거해 이관을 원하는 자치구별로 수요조사서를 제출했다. 이어 7월, 개별 구청을 직접 방문해 보유 기록물 현황과 함께 서고의 포화 정도 등 시급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이 과정을 거쳐 선정된 곳이 강북구청과 영등포구청. 각각 2016년부터 5개년 계획, 2012년부터 10년 계획을 세워 전산화작업을 추진해온 노력이 돋보였고, 상대적으로 기록물 포화도가 심각한 현실도 반영됐다. 동시에 두 자치구 담당자에게는 또 다른 긴장과 걱정의 시작이었다. 백 주무관이 털어놓은 솔직한 심경이다.

"이관 후 검수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이를 막기 위해서는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목록과 실물 기록이 맞는지 대조작업을 꼼꼼히 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2012년 파악한 비전자기록물이 3만5000권이었는데, 2020년 말 약 5만 권으로 증가했더라고요. 이 중 첫 이관 대상은 6000권 정도인데, 건수로 환산하면 수십만 건일 거예요. 대체인력 2명을 지원받아 총 4명이 꼬박 두 달 동안 하나씩 하나씩 열어가며 목록에 빠진 것은 없는지, 실물 위치가 틀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작업만 세 차례 했습니다."

두 달간의 검수 반복, 하루 만의 실물 이관

하지만 수고와 맞바꾸며 얻은 것도 많았다. 허 주무관은 첫 이관작업을 경험한 만큼 설렘도 상당했고, 과정에서 얻은 시사점도 적지 않았다며 웃었다.

"준비하면서 우리 구가 기록물을 다양한 형식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실물 기록과 기록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비전자기록물의 등록정보, 이용 편의를 위해 별도로 정리해 놓은 목록, 전산화 완료 시 제출된 산출물상의 목록 등으로요. 그러다보니 비교 검토를 할 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었어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었어요."

숨통을 틘 서고를 바라볼 때 흐뭇했지만 빈 공간을 다시 채울 기록물 위치 정보에 혼선을 피할 대책, 직접 열람 요청 빈도가 높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방안 등도 과제 목록에 올랐다.

백 주무관은 두 달 넘게 이어진 이관 준비에 비해 실제 기록물 이관작업은 하루 만에 깔끔하게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당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구청 출입구 안팎으로 선별진료소와 발열 체크 같은 지원 도구가 설치돼 있었거든요. 민원 동선과 겹쳐 항상 분주한 곳이라 기록물 이동작업이 가능할까 엄청 긴장했어요. 그런데 구청 차원에서 지원도 있었고, 서고 앞 계단에 레일을 설치하고 바로 이동차량으로 옮길 수 있도록 동선을 짜 실제 작업은 엄청 순조로웠어요."

기록물 이송작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송 차량의 '위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중요 기록물인 만큼 이송 중에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 항온항습 기준을 충족하는 무진동 차량이 지원됐다. 서울기록원에 도착해 기록물을 내리는 하역장도, 엘리베이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 환경,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이송작전이었다.

"자치구 기록관에서 기록물이 떠난 후 뒷정리를 하고 저도 서울기록원으로 이동했어요. 지정된 서고에 잘 도착했는지 확인하려고요. 사실 어쩌다 보니 처음 이관을 맡게 됐어요. 그렇지만 늘 공간 문제와 기록물 안전 문제를 신경써온 자치구 기록물 담당자로서 너무 좋았어요.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었달까요. 더욱이 당장의 일상 업무에 치여 수많은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기록물 활용은 엄두도 못냈어요."

이어 허 주무관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매력적인 콘텐츠로 재탄생한 자치구 기록물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2021년에도 또 다른 자치구 2곳에서 중요 기록물 이관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그래픽으로 알아보는 자치구 기록물 이관 과정









1 자치구 수요조사
- 서고 현장 방문
- 기록물 전산화 등 보유기록물 현황, 보존 서고 현황, 시급성 등 조사

2 기록물 확인
- 이관 대상 기록물 확정
- 이관 기록물 목록 작성 및 통보
- 기록관리시스템(RMS) 목록 및 스캔이미지 요청

3 기록물 포장
- 포장 작업
- 파손 예방 및 보안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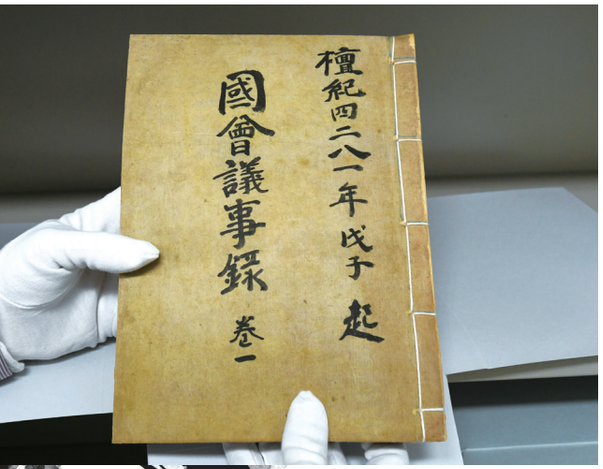
4 기록물 반출
- 이동:계단 레일 설치
- 기록물 차량 적재

5 기록물 이송 및 서울기록원 입고
- 이송:온습도 조절 가능한 무진동 차량
- 하역
- 이동:화물엘리베이터
- 서고 배치:사전 배정된 서고 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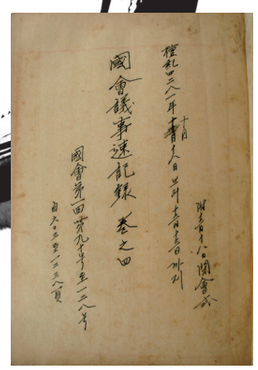
6 기록물 이관 완료
- 이관 목록 재확인 및 완료

우리는 기록물을 받는 대신 믿음을 선물합니다

국회 아키비스트가 전하는 **기록수집 여정**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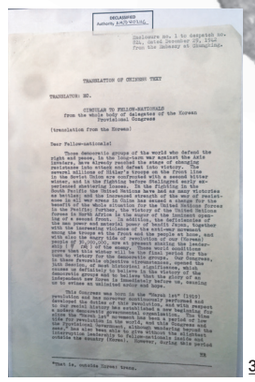
2

1
부산교육사료관에서 발견해
회수한 제헌의회 회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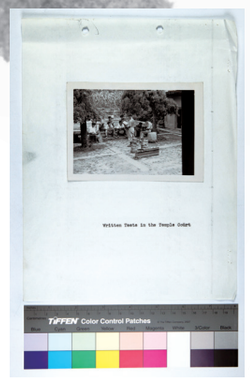
2
회수 뒤 복원된 제헌의회
회의록 14권 모습

3
임시의정원이 발표한
동포들에게 고함 '영문 기록물'

4
OSS(현 미국 중앙정보국(CIA))
훈련 중 휴식을 취하는 광복군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



3



4

#수집 기억 하나

부산교육사료관에서 제헌의회 회의록을 만나다

이직 첫해인 2010년, 수집업무를 맡으면서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교육사료관을 방문했다. 부산교육사료관은 2004년부터 사라져가는 부산교육 관련 역사기록물을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학생 수가 줄면서 남는 학교 공간 일부를 수집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수집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해 주목받는 기관이었다.

부산교육사료관에는 초등학교에서 수업시간을 알리던 종, 운동회 때 열심히 굴렸던 커다란 공과 오자미(콩주머니), 시간가는 줄 모르고 만들던 과학실 과학상자 등 교육 자료가 모여 있었다. 잠을 설치고 흙먼지를 마시면서도 신났던 운동회 기억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잘 수집된 박물 하나로 아련한 기억이 또렷해진 것이다. 한 교실에서는 특이하게 문중의 족보도 보였다.

그러다 다른 서가에 꽂힌 제헌의회 회의록을 발견했다! 마침 담당 선생님이 제헌의회 회의록이 왜 있는지 연유를 아는 분이었다. 1948년 제헌의회 최봉식 전 의원의 자녀분이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기증했고, 교육사료로 활용하기 위해 사료관으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바닥에 쪼그려 앉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국회의사록 14권이었다. 기록물 상태는 일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부분 훼손과 함께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생물학적 열화 흔적이 보였다.

국회로 돌아와 부산교육사료관 회의록과 같은 형태의 회의록이 존재하는지 살폈다. 국회 회의록 주무 부서인 의정기록과를 통해 기존 회의록과 차이도 파악할 수 있었다. 국회 회의록은 '보존 회의록'과 '배부 회의록'으로 나뉘는데, 회의가 종료되면 보존 회의록은 의장의 서명을 거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된다. 부산교육사료관에서 보유 중인 회의록은 발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의원들에게 배포한 배부 회의록이었다. 회기 중간에 생산된 형태라 회의록 발간 과정을 알 수 있었고, 기존 국회 보존 회의록과도 구별되는 기록물이었다.

곧 국회기록보존소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 국회기록물 회수를 요청했다. 기관 간 기록물 회수 시 권리관계 등을 포함한 회수 계획을 수립해 공문을 시행하고 구체적인 인수 절차를 거쳐 국회기록보존소로 이관을 마쳤다. 이후 국회기록보존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부산교육사료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회의록과 같은 형태의 영인본을 제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보존용 DVD에 담아 제공했다.

또 제헌의회 회의록 원본을 잘 보존하기 위해 전문업체를 통해 곰팡이와 먼지 제거 등 보존처리 작업을 하고, 중성용 보존상자에 넣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하는 환경에서 보존하고 있다. 지금은 국내외 국회 방문자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수집 회의록을 소개하고 있다.



5



6

5
국회도서관 1층 기념 전시실에서
볼 수 있는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흉상

6
홍진 의장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임시의정원 관인

#수집 기억 둘

미국에서 대한광복군을 발견하다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국회의 뿌리이자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국민의 대표기구다. 1919년 4월 10일부터 1945년 8월 17일까지 총 39회 회의를 개최, 대한민국 국호 제정을 비롯해 임시정부의 조직을 구성하고 기본법인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제정했다. 국회의 주요 수집 주제일 수밖에 없다. 원래 임시정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해 임시정부, 연해주 대한국민의회, 국내 한성정부 등 3개로 분리돼 각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임시정부는 임시의정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3곳을 위주로 기록물 기획수집을 하려다 시간이 흐르면서 해당 기록물을 수집해 보관 중인 기억기관으로 초점을 맞췄다. 타 기관 소장 중복 자료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임시의정원의 모태가 된 상해,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 기록물을 압수수색했던 자료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동경관 및 관서관, 외무성 외교사료관, 마지막으로 전 세계 기록물 보고(寶庫)인 미국 국립문서기록청(NARA)을 중심으로 '해외 기억기관 소장 임시의정원 기록물'을 수집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나는 미국 수집팀 소속이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청이 보유한 자료가 워낙 방대해 자문을 받고 조정한 결과, 우리나라 광복군이 CIA의 전신인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에서 훈련받은 사진이 매우 부족하기에 훈련 과정을 촬영했던 홉스Frank A. Hobbs를 찾아 당시 사진을 찾는 게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2018년 10월 11박13일 일정으로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국립문서기록청을 찾았다. OSS 사진 담당 훈련장교인 홉스 관련 기록 및 사진기록 컬렉션에서 홉스가 촬영한 일지와 인사기록철 등 약 5000면을 수집했다. 한 가지 쾌거는 뜻밖에 문서 뒷면에 붙은 대한광복군 휴식 장면과 산비탈을 내려가는 훈련병 모습이 담긴 사진을 발견한 일이었다. 영문 문서라서 수많은 챕터를 읽어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찬찬히 문서 뒷면까지 살핀 결과 찾아낸 성과라 보람이 컸다.

그렇지만 수집이 작업의 종료는 아니다. 수집은 또 다른 기록관리의 시작, 애써 수집한 기록이 일회성 보고로 끝난다면 기록 본래의 내재적 가치가 다시 사장되고 만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보존관리 및 서비스로 넘어가야 한다. 궁극적으로 모든 기록관리가 서비스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수집한 기록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상에 소개할지에 대한 깊은 통찰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얻은 기억이다.

#수집 기억 셋

위기 때마다 임시의정원 문서를 먼저 챙긴
홍진 의장의 유지를 생각하다

국회도서관 1층에는 임시의정원 홍진 의장 기념전시실이 있다. 나에게 낯설었던 홍진은 사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놓고 보면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임시의정원 의원이었고, 법제위원장으로 헌법 개정 및 제도를 정비한 인물이다. 의장을 세 차례 역임했고, 임시정부 국무령과 법무총장을 지냈다. 그렇다 해도 예전에는 그리 큰 인물로 자리 잡고 있지 않았다. 해방 직후 금방 돌아가신 것도 한 이유이지만, 평소 그를 잘 몰랐기 때문이다. 임시정부 연구나 관심에 비해 임시의정원 연구는 드물어 알려진 관련 인물도 소수이다. 임시의정원보다 임시정부 활동 경력이 더 크게 부각되어온 측면도 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현존 임시정부 기록물은 거의 없는 반면, 임시의정원 문서는 상당 수 존재한다. 그 이유는 위기 때마다 임시의정원 문서를 가죽가방에 싸서 직접 챙긴 홍진 의장 덕분이다. 홍진 사후에 유족들이 문서를 국회도서관에 기증했고, 국회도서관은 2010년 홍진 의장 기념전시실을 설치했다. 이후 10년간 국회도서관은 홍 의장 유족들에게 임시의정원 100주년을 기념해 기념전시실을 재단장하려는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홍진 의장의 며느리가 보유 중인 임시의정원 관인과 주요 도장 등 총 4점에 대한 기증을 요청해왔다. 이 과정에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나도 참여했다. 관인 등은 역사적으로, 국회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기록물이기에 한국까지 어떻게 이송할지 여러 차례 내부 회의를 가졌고, 이동 시 분실 우려도 있어 미국행 방문수집까지 계획했다. 그러나 조율과정에서 미국 현지방문 수집방향을 선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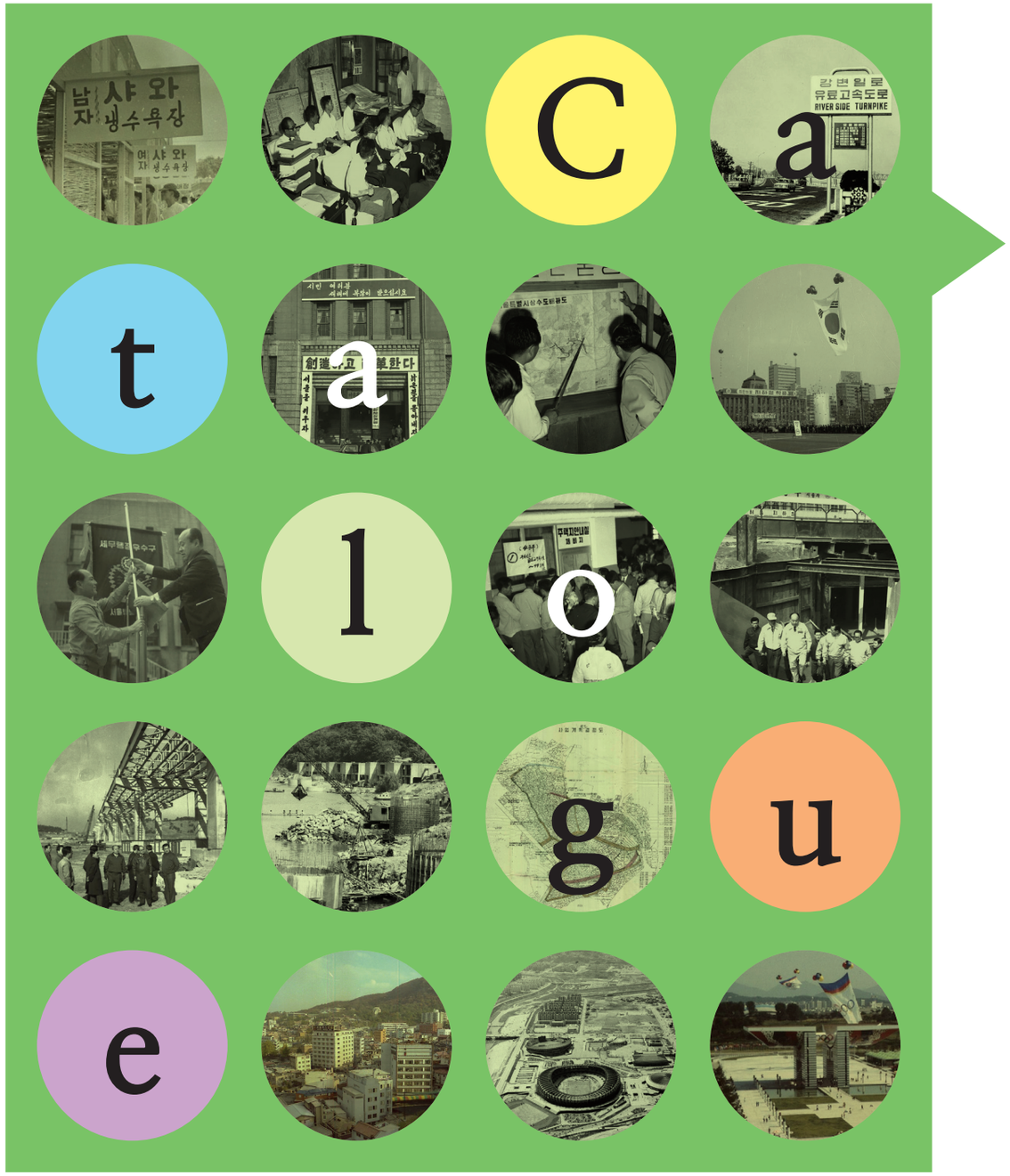
다시 기념전시실 리모델링에 주력하면서 홍진 의장 관련 저술을 읽었다. 특히 한시준 교수가 쓴 〈홍진〉에서는 홍진의 약보나 기증 문서를 어떻게 배열하면 좋을지 많은 시사점을 얻었다. 한편으로 만약에 대비해 임시의정원 관인을 기증받을 경우 바로 전시실에 놓을 관인함도 마련했다. 관인 크기나 형태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가족과 연락할 때는 잊지 않고 전시를 마치면 국회기록보존소 보존서고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것임을 안내했다. 감사하게도 관인을 포함, 임시의정원 활동에서 쓰인 4개 주요 도장을 행사 당일 기증받았다. 국회의장과 국회도서관은 홍진 의장 흉상 제막식에 며느리와 가족을 초대해 감격의 인사도 나눴다.

요즘도 가끔 홍진 의장이 베개 속에 간직하다 나중에는 가죽 지갑에 지니고 다녔던 관인을 유심히 들여다본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그분의 유지는 무엇일까. 나라를 잃은 홍진 의장은 변호사로서 개인의 안위보다 험로를 택해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를 이끌었다. 귀국할 때 제일 먼저 챙긴 임시의정원 문서와 관인들… 그는 여러 활동을 말로써 설명하기보다 기록 자체가 가진 힘을 믿지 않았을까. 홍진 의장은 오늘도 기록이 역사이고, 그 역사의 주체로서 무엇보다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 기록임을 전하고 있다. 나아가 기록보존소에 소중한 기록물을 기증하는 분들의 심정을 헤아려본다. '나보다 더 잘 보존하고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아닐까.

2016년인가, TV프로그램 〈무한도전〉에서 미국 LA를 방문해 안창호 선생 거리를 조명하고 당시 '태극기'를 지닌 후손 이야기를 전했다. 그 후손은 태극기를 고이 접어 비단으로 꽁꽁 여며 보관하고 있었다. 순간 '직업병(?)'이 발동했다. 접어서 보관하면 서로 얼룩이 지거나 접힌 부분이 선명해져 기록물이 상하기 쉬워 적절한 보존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었다. 아울러 방송을 통해 '태극기' 존재를 알리게 돼 다행이지만, 수많은 중요 기록들이 가족이나 친지 등 일부에게만 소개되는 부분은 늘 아쉽다.

적극적인 수집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첫째, 보존전문가를 통해 장기적인 보존전략에 따라 안전하게 보존한다는 점 둘째, 사본 제작이나 3D(3차원) 프린터로 원본 원상복구를 가능하게 하는 점 셋째, 사본 전시와 열람 서비스 등으로 많은 이들에게 기록을 만나게 해준다는 점이다. 아키비스트의 기록물 수집 여정에서 첫걸음은 '믿음을 주는 것'이다. 거창한 기대가 아니라 기록물이 잘 보존될 수 있다는 상호 굳건한 약속이다. 아키비스트는 기록물을 받는 대신 믿음을 선물하고자 최선을 다한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수집의 끝이다.

안정희 기록학 연구자
『기억공간을 찾아서』『기록이 상처를 위로한다』 저자



카탈로그 타고 기록의 바다 항해해볼까

어느 날 평소 팬을 자처하며 눈여겨보는 배우, 혹은 권력을 향한 이전투구나 학교 폭력, 치매 같이 평소 관심 주제를 짜임새 있게 그린 드라마가 찾아온다는 소식을 접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작품을 맛깔나게 즐기고 싶은 이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하는 곳은 어디일까.

드라마엔 기본정보, 기록엔 카탈로그!

대개 드라마의 얼개와 관련 콘텐츠를 모아놓은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본정보'를 살필 것이다. 다양한 인물들이 저마다의 이야기를 종횡으로 펼쳐놓는 한 회 한 회가 모여 한 작품을 완성해가는 드라마의 특성상 등장인물의 성격, 인물관계도, 주요 사건, 설정된 시공간에 관한 기본정보는 본격적으로 다뤄질 거대한 서사의 밑그림과 등장인물들이 표현하는 행위를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감각적인 기본정보는 극에 대한 궁금증과 흥미를 배가하려는 제작진의 바람이 담긴 서비스이자 지도이다.

이런 '기본정보' 제공 서비스를 기록 분야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기록기관들의 '카탈로그Catalog' 서비스다. 쉽게 풀이하면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나누거나 묶고 그 정보를 정리해 전달하는 작업인데, 각 기관들이 어떤 기록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록에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기록과 관련된 사람이나 단체는 누구인지, 각각의 기록들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안내하는 '길잡이'라 할 수 있겠다.

카탈로그는 서울시 공공 행정기록과 시민기록을 관리, 수집하는 서울기록원이 공을 들이는 주요 서비스이기도 하다. 기록기관의 역할에는 정보이자 오랜 노력과 경험의 집합체인 기록 유산이 보존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풍성하게 활용되도록 하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방대함을 넘어 압도당할 듯한 규모와 복잡한 기록의 바다에 무작정 달려들었다가는 길을 잃기 십상이라는 사실이다. 게다가 하나의 기록을 확보해도 그 자체로는 전체의 과정이고 일부여서 해당 업무를 왜, 어떻게 했는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2020년 서울기록원이 발간한 '카탈로그북-도시계획 편'에서 카탈로그가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엿볼 수 있다.

서울 시민들과 기록 콘텐츠를 연결하다

연구나 글쓰기 등의 이유로 '서울시 주택 도시계획' 관련 기록 검색에 나선 이가 먼저 발목 잡힐 가능성이 높은 내용으로 '담당부서'를 예상할 수 있다.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변화의 현장이었으니 주택 도시계획 업무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규모가 바뀌고 그에 따라 조직이 커지고 분화됐을 터. 실제로 도시계획국은 이후 주택국, 건축국, 건설관리국 등으로 개편됐고 업무기능도 조정됐다.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도시계획 업무 전반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 1962년 담당부서였던 '도시계획국'의 한 회의록을 찾았다고 치자. 그런데 한 건의 기록인 이 회의록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는 훨씬 풍부한 부가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당시 도시계획을 위해 수행된 전 회의록의 개요(기록기술 영역)와 도시계획국의 업무활동 목적(조직과 단체 영역), 그 목적이 도시기본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자치구 도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업무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업무기능 영역),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누가 참여했는지(인물 영역), 회의 결과가 실제로 주택 도시계획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주제 영역) 등을 알아야 한다. 이럴 때 드라마의 기본정보처럼 영역별 목록과 기술을 담고 있는 카탈로그는 원하는 기록에 빠르고 입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안에 모의회의와 탐방지도, 영화, 소설 있다?

시민과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엄청난 기록을 연결하는 카탈로그를 향유하는 특별한 방법도 여러 갈래다. 우선 교육용 콘텐츠로 만날 수 있다. 초등학교 사회과 과목의 '도시탐방' 수업의 경우 카탈로그 메인 페이지의 검색창에서 '전체 정보유형'을 선택한 후 '광장'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결과 페이지에서 광장 전반에 관한 개요(기록기술)와 기본 설계계획, 광장도면 같은 개별 기록들의 생산자(인물), 광장에 관한 일(업무기능), 기관의 변천사(조직과 단체), 광장의 행정구역, 공간, 사업단위(공간/지역) 등에 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중 특정 정보유형을 선택하고 검색필터가 나타나면 이를 활용해 더 자세한 기록을 찾을 수 있다. 검색한 '회의록' 모음으로 수업시간에 '모의정책회의'를 기획하거나 '서울탐방지도'를 만들 수 있고, 연도별 기록 추이를 살펴 광장의 역사를 담은 책을 만들 수도 있다. 또 시대별 광장 설계도면 변천 과정을 살펴 공간디자인 참고자료로 사용할 수도, 서울시민들의 '광장' 이용 변화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쓸 수도 있다.

나아가 창작 활동의 재료나 자원으로 맛보고 즐길 수 있다. 서울을 시공간으로 하는 영화, 드라마부터 소설 등 모든 창작물의 시공간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사진, 도면, 영상, 종이문서, 전자문서, 박물 등 다양한 기록매체를 기본 재료 삼아 서울을 생생하게 재현해 상상의 폭을 확장하는 것이다.

과거 경험이 미래 계획 되도록!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도 청구 대상 정보의 기초자료로 먼저 카탈로그를 살피는 것이 효율적이다. 법 제·개정이나 정부의 직제, 정책이 바뀜에 따라 공공기관과 부서 이름은 계속 변경된다. 일반 시민은 행정정보의 생산연도, 생산기관, 업무내용을 잘 알기 어렵다. 서울기록원 카탈로그는 업무주제별, 기관별, 정보유형별 기록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1974년도 서울시장이 누구인지, 당시 주무부서 이름은 무엇이고, 오늘날 그와 같은 업무를 하는 기관은 어디인지 쉽게 찾을 수 있다. 더불어 서울기록원 카탈로그 서비스는 여러 기록 소장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흩어져 있는 기록들을 통합적으로 포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기록기관의 카탈로그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수록 기록과 기관, 기록과 사람, 사람과 사람의 연결은 정교해질 것이고, 그에 비례해 서울 시민들의 과거 경험은 미래 자산이자 계획으로 이어질 것이다.

카탈로그는……

지도를 읽기 위해 방위나 기호, 표시 등 합의된 기준이 있어야 하듯 카탈로그에도 구성 영역이 있다. 기록기술, 조직과 단체, 인물, 업무기능, 주제, 지역과 공간, 소장처 등이다. '기록기술'은 기록의 기본정보와 기록묶음에 대한 기술이 중심이다. '조직과 단체'와 '인물'은 각각 기록 관련 조직과 단체,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정보이다. '업무기능'은 기록을 생산하게 한 일의 규모와 단계를, '주제'는 기록과 관련된 정책이나 사업, 사건 등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지역과 공간'과 '소장처' 각각은 기록의 시공간적 배경과 보유 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한다. 카탈로그는 이 영역들을 기반으로 기록을 생산한 맥락을 고려해 몇 개의 업무 과정을 하나의 기록묶음으로, 그런 기록묶음들을 특정 업무를 아우르는 더 큰 묶음으로 구성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요를 설명한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맥락의 줄기를 잡아가야 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다. 서울기록원 카탈로그 서비스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오프라인 안내서인 카탈로그북은 현재 도시계획 편만 나와 있다. 앞으로도 카탈로깅을 진행하고 있는 교통, 건설, 공원에 대한 카탈로그북도 순차적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카탈로그북-도시계획



1
서울기록원 카탈로그북
Vol.1 도시계획

2
카탈로그북이 정리한
도시계획 업무기능 중 1980년대
서울도시기본계획

3
카탈로그가 안내하고 있는
택지개발 업무 프로세스

4
카탈로그북에 소개된
도시계획 분야 조직 변천 전개도

빠르게 많이 정확하게 스캐너,



'접근을 가능케 하라Make Access Happen.'
미국 국립문서기록청(NARA)이 지향하는 핵심 전략 목표 중 하나이다. 사실 어디 기록만이랴! 언론자유를 포함해 원하는 정보나 비밀에 개개인이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표현과 참여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권의 하나로 보장하는 것은 민주사회의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이다.
곱씹어야 할 지점은 접근권이 그 자체로는 명시적인 선언에 가깝다는 사실이다. 접근이 보장된 그 정보가 부실하거나 아예 기록으로서 신뢰를 의심받을 수 있다면 접근권은 기본권으로서 한계를 안고 있는 것이다. 이를 잘 알고 있는 대다수 기록기관들은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 말 그대로 물심양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기록원도 다르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 위한 듬직한 장비
여기에는 혁신적인 기술을 장착하고, 고효율 기능으로 무장한 기록화 장비에 대한 과감한 투자도 포함된다. 오늘 소개하는 장비는 그중에서도 활약상이 대단한 '스캐너'.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는 일부터 시민들이 편리하게 기록 콘텐츠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최고의 방법인 디지털화 작업을 전담하다시피 수행하고 있는 장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 그래서 가격대가 조금 높긴 하다.
서울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서 서울기록원은 서울시정기록과 시민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하기 위해 최고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다. 이 중 디지털 환경에 조응해 공공은 물론 역동적인 수많은 민간 아카이브까지 네트워킹하고 디지털 기록정보를 관리·서비스할 수 있는 수준 높은 디지털 아카이브로 성장하는 것도 핵심과제이다.

기록에 접근을 부탁해~

여러 범주가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계획 가운데 기존 아날로그 환경에서 생산, 보존되어온 기록물들을 디지털로 변환하는 작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말하자면 종이문서기록, 사진, 마이크로필름, 자가테이프 방식의 저장매체인 비디오·오디오 테이프 같은 아날로그 기록에 담겨 있는 문자나 그림, 사진을 '읽어서' 컴퓨터에서 통용되는 디지털 파일 형식(대표적으로 TIFF, PDF, JPEG 등이 있다)으로 전환하는 작업이다.

공간 제약은 덜고 활용은 쉽게
디지털화 작업을 하는 것은 그만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방대한 기록물 '양量'에서 파생되는 문제로부터 한결 자유로워진다. 아날로그 기록들은 '실존'하기 때문에 언제나 일정한 시점과 물리적 공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 잘 알다시피 공간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반면 디지털화를 마친 방대한 기록은 (상대적으로) 작고 가벼운 저장장치 안에 '논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덕분에 기록물의 양에 따라 공간을 늘려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반드시 그곳에 가야만'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또 기록물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활용하기도 한층 용이해진다. 디지털화 과정에는 디지털 파일로의 전환과 함께 해당 디지털 기록물에 이름을 붙이면서 관련 설명이나 맥락 정보를 기술하고, 관련어들이 검색에 노출되도록 해 풍부하게 기록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카탈로깅 작업이 동반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록물을 검색하고 발견하고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환경은 연구자 혹은 창작자들과 만나 더욱 신선한 2차, 3차 콘텐츠 탄생으로 이어지는 기반이기도 하다.

고속, 훼손 위험 저하 등 특별한 기능들
스캐너는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임무를 주도적으로 실행하는 장비이다. 서울기록원은 개원 이후 지난 3년 동안 '청도문서고'에서 이관한 서울의 기록 중 마이크로필름 8229롤 가운데 7546롤을 디지털화했다. 한 롤에 작게는 500~600컷에서 많게는 5000컷의 프레임문서나 도면 기록물 촬영이 담겨 있던 걸 감안하면 디지털화한 기록물 건수는 최소로 잡아도 1300만 건이 넘는다. 2021년에도 683롤을 추가로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서울기록원이 보유하고 있는 스캐너는 마이크로필름용 스캐너를 비롯해 지류, 즉 종이 기록물 관련 장비는 비교적 대중적인 평판스캐너와 5분 만에 1000매를 변환하는 고속스캐너가 있다. 또 책이나 제본된 기록물부터 훼손 위험이 높은 오래된 기록물, 크기가 큰 도면이나 물건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할 수 있어 효용도가 높은 오버헤드 스캐너도 있다.
특별한 기능을 자랑하는 만큼 이 스캐너들은 가격대도 만만치 않아 합하면 5억원이 훌쩍 넘을 정도. 하지만 스캐너의 가성비는 기록에 대한 문턱을 낮추고 다채로운 활용과 확장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미래까지 감안해 산출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기록원이 보유한 **'위대한' 스캐너들**

FI7700은 유리로 된 기록물 받침대에 문서를 얹어 자동급지장치ADF를 통과하거나 반사된 빛을 분석해 이미지로 변환하는 평판스캐너이다. 일반 가정에서 흔히 쓰는 스캐너와 동일한 방식인데, 서울기록원이 갖춘 평판스캐너 FI7700은 평판에 더해 고속 스캔 기능이 더해져 사양 면에서 단순 비교할 수 없다. 서울기록원은 FI7700을 총 5대 보유하고 있다. A3297mm×420mm 크기까지 스캔이 가능하고, 속도도 1분당 100매로 상당히 빠르다. 또 직선 방향으로 스캔하기 때문에 원본 기록물의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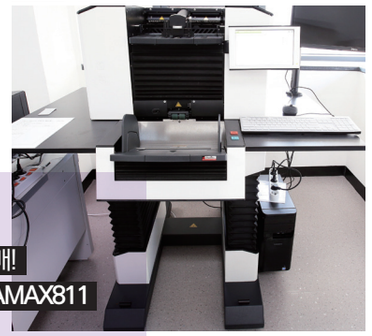
일명 '오버헤드스캐너'로 불리는 OS16000 Advanced Plus도 빼어난 성능을 가진 스캐너로, 무엇보다 기록물 손상을 최소화하는 기능이 대표적인 장점이다. 오래돼 산화, 부식 같은 훼손이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손상이 심한 문서는 작은 것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 경우 스캔 작업 이전에 복원 과정을 거치지만 디지털화 과정에서도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책이나 제본된 기록물부터 훼손 위험이 큰 오래된 기록물, 크기가 큰 도면, 물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기록물을 스캔할 수 있고, 최대 A2420mm×594mm 크기까지 변환 작업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다. 특히 책이나 제본된 기록물의 경우 가운데 접지 부분이나 굴곡진 면을 자동으로 보정해 줄 뿐 아니라 기록물을 고정할 때 함께 찍히기 쉬운 손가락을 제거하는 등 입체적으로 디지털 기록물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고사양 평판스캐너
문서스캐너 FI7700



원본 기록물 훼손 최소화
오버헤드스캐너 OS16000 Advanced Plus



5분 만에 1000매!
고속스캐너 SCAMAX811

SCAMAX811은 대량의 문서를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는 고속 스캐너로, 해상도 600dpi 기준으로 A4210mm×297mm 용지 단면 스캔 속도가 220ppm이다. 이는 1분에 220장을 스캔할 수 있는 속도이다. 또 급지를 한 번에 1000매까지 할 수 있는데, 완전 자동화로 1000매 분량의 문서 스캔에 소요되는 시간은 5분. SCAMAX811는 장비 가격만 1억5천만 원이 넘는 고사양 스캐너로서, 국내에서는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소수의 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프레임을 디지털 파일로
마이크로필름스캐너 8820

마이크로필름은 사진 기술을 이용하여 대량의 문서나 도면 기록물을 조직적으로 축소해 기록해 두는 매체이다. 평균 수명이 500년으로, 현존하는 기록 보존 매체 중 가장 길다. 그러나 고온, 고습, 태양광 등 물리적인 환경에 의해 변질될 수 있고, 마이크로필름 역시 아날로그 매체라 서비스 효율화를 위해서는 다시 디지털화 과정이 필요하다. 8820은 마이크로필름에 촬영된 기록물들을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한다.



Interview__ 허인석 공업연구사가 제안하는

집에서 하는 **슬기로운 디지털'화' 작업**

서울기록원에는 소독·훈증·탈산기를 비롯해 다양한 기록 관리 장비가 있다. 그리고 이 장비들의 '작업량'을 계획하고 통제하는 일부터 고장이나 사고 없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 효율적 사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의 업무를 하는 공업연구사들이 있다. 허인석 공업연구사는 그중에서도 보존·복원 장비시설 운영, 매체 보존·복원, 기록물의 디지털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가양대교 건설 모습, 버스 토큰과 회수권,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 등 지금은 역사가 된 서울의 기록을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를 총괄하면서 그는 "기록은 현재 살고 있는 서울이라는 도시의 생활 인프라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는 것 같다"면서 "장비의 성능과 상태가 좋을수록 무손실, 고품질의 디지털 기록을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기에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허 공업연구사에게 '시민의 스캔'에 대해 들었다.

1 어떤 기록물을 스캔해서 디지털화하면 좋은가.

공공기록에서 영구기록물에 해당할 '본인에게 소중한 기록', 잘 보존하고 싶은 기록인 '이대로 간직하고 싶은 기록', 검색과 활용 빈도가 높은 기록물이라 할 수 있는 '언제든 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는 기록' 등이 아닐까 한다.

2 스캐너 사용 '꿀팁'을 투척해준다면!

사용 매뉴얼을 숙지한 뒤 스캐너를 사용할 것, 문서 받침대 유리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것, 해상도를 높일수록 좋은 화질로 스캔할 수 있으나, 컴퓨터 저장공간의 용량이 무한정이 아니므로 이를 고려해 적절한 스캔 품질을 설정할 것!

3 스캔한 파일을 잘 정리하는 노하우는.

스캔한 파일을 하나의 저장장치에 저장하되 기준에 따라 폴더구조를 갖추어 분류 및 정리할 것을 권하고 싶다. 또 폴더명, 파일명은 날짜나 인물 등 누가 보아도 직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이름을 붙여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임의로 폴더명, 파일명을 정하기 어려울 때는 '연도>월>날짜'와 같이 '시간'을 기준으로 폴더를 구조화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변진경
〈시사IN〉 탐사기획팀장

Book

재난은 결국 '기록' 속에서 재소환되기에!

'COVID-19' 기록물

1 〈나는 감염되었다〉

2 〈서울시 코로나19 백서〉

3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지난해 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보도를 맡았을 때 가장 먼저 한 작업은 예전 기록물들을 찾아보는 일이었다. 코로나19는 처음이었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다른 이름의 신종 감염병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와 2015년 메르스 사태다. 그때 기록들을 통해 현재의 혼란을 예전과 비교해 설명하고, 앞으로 닥칠 난관과 과제, 전망을 예측해보는 기사를 쓰고 싶었다.



1



2



3

망각되는 **지식**과 **경험** 앞에서

곧 노트북 컴퓨터 폴더 안에 여러 권의 '백서'가 쌓였다.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과 시민단체 등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나 메르스를 겪은 뒤 내놓은 결과물들이었다. '이것들만 다 읽으면 괜찮은 기사를 전할 수 있겠구나' 기대하며 기록을 읽기 시작했다.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 실망스런 마음으로 노트북을 닫았다. 수백 쪽 백서의 상당 부분은 당시 발표된 보도자료, 배포했던 포스터 이미지, 서울역 광장 등에서 벌인 '손 씻기 캠페인' 행사 사진 등으로 잔뜩 짜깁기돼 있었다. 약간 과장하면 기관의 '성과 자랑' 덩어리였다. 절실히 보고 싶었던 '신종 감염병 유행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시행착오를 겪었고' '어떻게 극복했고' '무엇이 끝내 극복되지 못했는지'를 성실하게 담아낸 기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동시에 겪은 어떤 사건(특히 재난)은 결국 '기록' 속에서 재소환된다. 같은 시공간에서 함께 겪은 일이라 '분명 우리 모두 알던' 지식과 경험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망각되고 왜곡되고 파편화되기 일쑤다. 정제되고 분류된 공공의 기록은 그래서 중요하다. 당시 사람들 삶을 관통했던 보편적 사건, 정서가 공공의 기록을 통해 후대까지 전해질 수 있다. 물론 공공의 기록은 국정, 시정 등 '관(官)'의 기록과 함께 그 시대를 살아간 국민 개개인의 기록까지 포함한다.

충실해지는 **재난 기록**들

지난해 8월 발간된 〈서울시 코로나19 백서〉와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 등은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관통한 2020년 한국 사회를 훌륭히 박제해 낸 공공 기록물이라 할 수 있다. 그간의 백서가 결과 정리 중심이었다면 이 기록물들에는 서울시가 단계별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온 정책 변화와 그것으로 인한 시민 일상의 변화, 한계와 과제까지 담겨 있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감염병 재난의 타임라인 사이사이 삽입된 시민들의 구체적인 일상 기록이다. '다중이용시설 방역'(〈서울시 코로나19 백서〉 165쪽) 주제 안에는 한 시민기자가 자신의 아버지 장례식을 가족끼리 치른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방역 물품관리'(181쪽) 영역에는 공적마스크 구매기, '재난 지원 정책'(184쪽)에서는 재난긴급생활기가 함께 서술돼 있다.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이 2020년 팬데믹 일상을 기록한 일기를 담은 〈2020 서울기록원 아카이빙북〉도 비슷한 효과를 낸다. "4월 생일 파티가 취소돼서 너무 속상하고" "새 학기 실내화를 사놨는데 금방 신지 못해서 오히려 큰 사이즈를 사놓은 것이 다행"이라는 아주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문장들이 어떨 때는 객관적인 '팩트'나 일지보다 훨씬 생생하게 사람들의 기억을 다시 한데로 모아줄 수 있다.

'성북구 13번 확진자'의 자기 고백과 고발

그런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코로나19 기록물 중 하나가 2021년 3월 출간된 〈나는 감염되었다〉(서창록, 문학동네)이다. 저자는 대학교수이자 인권NGO 활동가, 유엔 인권위원. 하지만 이 기록을 펴낸 계기는 '성북구 13번 확진자'라는 경험이다. 인권을 정책 위주로 감각하던 교수, 활동가, 전문가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온몸으로 부닥쳤을 때의 충격과 깨달음을 기록한 이 책은 기존 인권 정책과 담론이 닿지 못한 현실적 디테일, SNS 개인 포스팅에서 끌어내기 힘든 인권 이슈의 보편성과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전한다.

이를테면 이 책은 2020년 수면 위로 떠올라 세계적으로 점점 강화되는 정서, '혐오'에 관한 기록이다. 다른 국적, 인종, 지역, 계층의 사람들 서로가 주고받는 차가운 눈초리와 직간접 폭력의 기억은 단순히 '혐오 범죄 ○건 발생' '혐오 발언 ○% 증가'라는 통계만으로 체감하기 힘든 영역이다.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로 불리던 시기 해외 공항에서 "'나는 한국인입니다'라고 말하고 다니고 싶었고" "그래서 여권을 은근슬쩍 사람들 보이게 들고 걸었"고 "한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기까지 했"(이상 책 27쪽)던, 하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입국심사 과정에서 모욕적인 대우를 받고 수년 전 인권 수업에서 다룬 난민의 사례를 떠올렸다는 이야기는 (평소 국제 사회에서 차별과 낙인에 반대하는 활동가이자 유엔 인권위원이던) 저자가 동시에 '성북구 13번 확진자'였기에 나올 수 있었던 귀한 기록이다.

기록은 다음 팬데믹을 상대할 또 하나의 무기

확진자 동선을 추궁하고 추적하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느낀 당혹감(73쪽), 개인 정보가 낱낱이 밝혀지는 확진자 발생 공지와 뉴스 속에서 찍히는 감염인의 낙인(75쪽), 격리병상에서 겪은 감시(91쪽), 혈액 기증을 재촉하는 언론과 대중 앞에서 드는 위축감(140쪽) 역시 2020년 한국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겪은 보편의 경험임에도 공식적인 기록에는 잘 담기지 못한 팬데믹의 '필수' 비공식 기억이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이 '잃어버린 기억'이 되지 않도록 한 〈나는 감염되었다〉를 읽고 매우 반가웠다.

불행하게도 팬데믹은 또 올 것이다. 그 전망을 부정하는 전문가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결국 과거의 '기록'밖에 없다. 후배 기자들은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인류 사회에 찾아왔을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2020~2021년 코로나19 기록물을 들여다볼 것이다. 그들이 나보다 좀 더 '건질 게 있다면' 이번 코로나19와의 싸움은 적어도 '기록' 부문에서 완전히 패배하지는 않은 셈일 것이다.

손동유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

느끼지 못했을 뿐

기록, 정보, 아카이브 혹은 아카이빙. 이런 단어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거칠게 정리하면 대략 두 가지 원인에 기인하는 현상이 아닐까 한다.
우선 법과 제도의 영향이다. 요즘엔 공사 규모에 상관없이 현장에는 안내판이 설치돼 무슨 일이 언제까지 진행되는지 설명한다. 담당자 연락처까지 적어놔 불편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전달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시민이 충분히 질문하고 항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한 법규 덕분이다.

아카이빙 역량이 자라고 있었다

법제도 위, 디지털 환경 속

우리 사회는 공적 업무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 감시를 제도로 보장하고 있기도 하다. 공공기관이 업무의 배경이자 결과로서 기록을 잘 만들고 남겨 시민이 요구하면 이를 근거로 한 설명과 열람서비스는 상식으로 자리 잡았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이다.

이어 1999년에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등장했다. 정확한 명칭과 내용을 모를 수는 있지만 시민들은 이 제도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다음 원인은 디지털 환경이다. 전 지구적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강력한 촉매제와 별개로 최근 급속히 진전된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는 업무부터 일상적인 구매 행위, 식당과 대중교통 이용, 교육과 취미 등을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사고하고 만나는 중이었다.

'기록'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제 '누구나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라는 선언이 새롭지 않다. 누구나 실시간으로 많은 양의 기록과 정보를 선별하고, 공유할 수 있고, 생필품이 된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생산, 수집, 분류, 정리, 보존, 활용에 이르는 모든 아카이빙 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문구아카이브, 호빵아카이브…

표현하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 아카이빙 역량을 갖춰오고 있었던 것이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특정 자료를 모아놓고 '아카이브'라 이름 붙인 디지털 시민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아카이브(archives)'가 영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 또는 그런 기록물을 다루는 기관이나 기구를 의미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미로 아카이브와 친숙해지고 있다. 문구나 마스킹 테이프 아카이브부터 '호빵아카이브(<호빵책>)'도 있다. '아카이브K'를 비롯해 TV방송에도 아카이브적 특성이나 요소를 결합한 프로그램이 생겨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일상화'가 곧 '일상 아카이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TV프로그램은 중요한 사건, 유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과 기록을 넘나들고, 특별한 성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이 '일상 아카이브'와 뚜렷한 차이다. 일상 아카이브는 보통사람들의 보통스러운 삶이 아카이브되는 것이다. 중앙, 권력, 명망가, 승자, 부자들의 기록 즉, 기록을 많이 남겼거나 남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층을 중심으로 서술되었을 확률이 높은 제도권 역사와 달리 일상 아카이브는 보통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시민사회의 아카이브 성취

역사를 배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거치는 다양한 경험을 들여다보며 잘한 일은 따르고, 잘못된 일은 경계하는 것 아니겠는가. 일부의 역사가 아니라 수많은 개인의 다채로운 삶으로 만나 세상의 미래를 설계해가는 과정에 일상 아카이브는 매우 의미 있는 전기를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이런 흐름은 '마을공동체'라는 시민사회의 새로운 실험과 도전에서 잘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성실' 그 자체를 목표로 '하면 된다'는 주문을 외우며 '열심히' 살아야 했다. 나와 가족의 안위를 생각할 뿐 다른 가치를 살피는 것은 사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와 자각을 기반으로 성장한 시민의식은 이웃에 험한 일이 생겨도 돌아보고 도울 겨를을 가지지 못했던 현실을 반성하며, 인권에 발 딛고 있는 수많은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와 함께 성찰을 통한 새로운 관계도 모색되었다. '마을'이라는 정감 어린 단어와 '공동체'라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두 단어의 조합인 '마을공동체' 활동은 해를 거듭하며 시행착오까지 포함한 건강한 성취를 축적해 오고 있다. 이 소중한 여정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삶, 관계, 활동을 기록화하고 있다. 일상 아카이브는 이미 시민사회에 뿌리내렸다.

일상 아카이브와 새롭게 관계 맺기

공공아카이브로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열린 기록원'을 지향하는 서울기록원의 정책 목표 중에는 '시민 속 일상 아카이브'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약속도 있다. 시민기록물 수집, 시민 아카이빙 활동 조직의 연계,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교육, 기록물 보존 공간 지원 등 서울기록원의 현재진행형 활동은 당연히 매우 의미 있는 노력이다. 그럼에도 아직 서울 시민들이 서울기록원의 대상이지 주인으로 역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일상 아카이빙에 관심과 지향을 둔 시민들이 서울기록원 운영과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지고 깊어져야 할 이유이자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부터 아카이빙 실무, 운영 평가 등에서 시민과 다양한 관계가 설정되기를 기대하는 이유이다.

마을공동체 기록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금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제1회 서울기록페어에서 발표하고 있다.



덕업일치 경지 오른 '덕질 아카이브'



처음에는 그저 흥미와 관심에서 하나씩 들여다보다 더 알고 더 갖고 싶어 조금씩 모으다가, 모은 자료들 때문에 점점 빠져들어 급기야 어마어마한 자료의 소장가가 되는 경험. 그 일로 콘텐츠를 만들고 그 분야 전문가가 되는 경험. 이 '덕업일치'의 경지에 이른 이들의 밑바탕에는 모두 방대한 자료 아카이브가 있다! 방법도 형식도 저마다 다른 세 가지 '덕질 아카이브'를 소개한다.



우리 나라 최초의 SF소설로 알려져 있는 〈방전탑의 비밀〉(이봉권, 대지사, 1951)
ⓒ더멋진신세계

더 멋진 신세계
bravernewworld.org

#digital archive #박상준 #SF덕질아카이브
#과학기술덕질아카이브

한국 과학문화사의 공백 메우는 SF전문가의 멋진 고군분투

박상준 씨는 SFScience Fiction에 '미쳐서' SF소설과 과학잡지를 덕질해 오던 SF비평가이자 해설가이다. 수십 년 동안 SF작품을 '덕질'하며 자신만의 독보적인 SF아카이브를 구축했다. 그러다가 관심이 과학기술 문화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더 멋진 신세계'라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꾸리게 되었다.

"한 분야에 깊이 빠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뿌리를 찾게 되죠."

그에게 SF소설을 읽는다는 건 미래를 대비하는 일 가운데서도 가장 재미있고 실질적인(?) 일이자 놀이이다. 이 활동에 깊이 빠지다 보니 한국의 과학기술 콘텐츠 전반의 수집과 연구 활동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그 성과물을 모은 아카이브 '더 멋진 신세계'에는 〈현대과학〉 〈과학시대〉 같이 해방 이후부터 한국전쟁 이전 시기에 나와 존재 자체도 알려지지 않은 귀한 과학잡지 사료들, 일제강점기나 20세기 중기의 과학 단행본이나 정기간행물들이 가득하다. 한국 과학문화사의 빈 구멍을 메우는 중차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한 개인의 멋진 고군분투가 완전 감동이다!

글리프
instagram.com/m.d.lab.press

#비정기간행물 #비평말고덕질 #작가덕질아카이브
#덕력평가서재중 #이정연

작품부터 모의덕력평가 굿즈까지, 본격 작가덕질 세계로 초대해요

대학에서 국문학을 전공한 친구들이 글을 쓰고 합평하는 모임에서 출발해 졸업 뒤에도 꾸준히 독서 모임을 이어오다 2019년 본격적으로 작가 덕질 아카이빙 책 〈글리프〉를 펴내기 시작했다.

"어쩌면 독서 모임 활동 자체가 작가를 덕질하는 일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의 작품을 읽고 깊이 이해하려는 시도가 덕심 없이는 어려운 일일 테니까요."

독서모임에서 나눈 이야기와 리뷰가 좋아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고 싶다는 마음으로 펴낸 책 〈글리프〉. 작가를 한 명 정하면 그 작가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나 주제를 뽑는다. 크게 작품, 에세이, 인터뷰, TMI(작가에 관한 사소한 정보)로 구분해 자료를 수집한다. 수집된 자료를 엮어 책으로 펴내고, 모의덕력평가문제지, 연표, 스티커 등 작가와 잘 어울리는 아카이브 굿즈를 함께 구성한다. 지금까지 정세랑, 구병모, 김금희, 강화길 작가의 덕질 아카이브를 펴냈다.



영화 좋아해서 이래요
instagram.com/lbbbbb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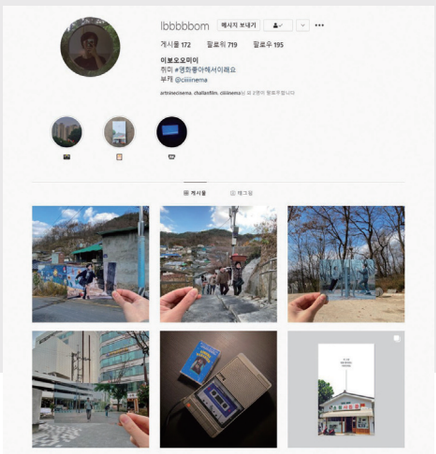
#영화촬영지아카이브 #영화덕질 #영화좋아해서이래요
#영화장면싱크로율고퀄 #이보미

영화 관계자도 반하는 촬영지 성지순례 아카이빙

그냥 영화를 좋아해 촬영지를 성지순례하듯 다닌다는 이보미 씨. 단순히 보고 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촬영 현장을 제대로 아카이빙하기 위해 제법 많은 준비를 한다. 좋아하는 영화가 생기면 엔딩크레딧에서 '장소협조'를 확인하고 감독 인터뷰, 뉴스 기사 등을 검색해 찾아갈 곳을 추린다. 이후 영화를 프레임별로 쪼개 돌려보면서 해당 구간을 '캡처'해 사진으로 인화한 뒤 영화에 나오는 장면과 가장 동일한 프레임이 만들어지도록 인고의 과정을 거쳐 아카이브한다.

"제 사진을 보고 영화 관계자들이 영화를 기억하는 방식이 인상 깊다고 말해 주었을 때,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20편의 영화를 다뤘고, 기록으로 남긴 촬영지는 40군데가 넘는다. 서울에서는 영화 〈우리들〉의 주 촬영지인 정릉동이 기억에 남는단다. 영화에서처럼 푸르고 살랑이는 느낌이 온전히 남겨져 있는 동네라서 추천한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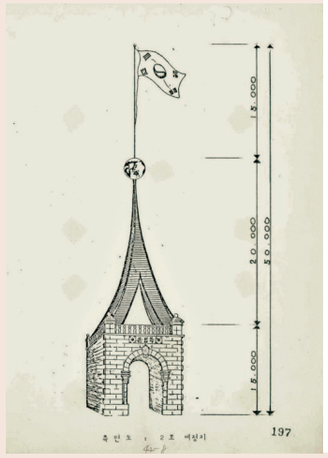


Archive News



2021년 하반기 서울기록원은…

서울기록원이 2021년 하반기 시민 여러분과 만남을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전시

기록,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하다

서울기록원은 7월 3일부터 10월 1일까지(예정) 소장기록물 가운데 1960년대부터 1990년대에 걸쳐 생산된 독립운동 관련 장소(독립운동가 생가, 서대문형무소, 파고다공원현 탑골공원 등) 기록물을 전시합니다. 서울기록원 기록열람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는 8·15 광복 76주년을 맞이해 서울에 위치한 독립운동 관련 장소를 살펴보고 기록으로 광복을 기억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기간 | 2021년 7월 3일(토) ~ 10월 1일(금) (예정)
장소 | 서울기록원 2층 기록열람실

시민과 기록축제

제2회 서울기록페어

기록활동을 하는 서울 시민들의 축제인 '서울기록페어'가 11월 개최됩니다. 지난해 온라인 개최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릴 서울기록페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더욱 풍성한 내용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기록원의 시민기록 수집 활동을 비롯해 서울 각지에서 활동 중인 기록활동가들의 기록 이야기, 그들이 만들어간 소중한 기록들을 네트워크 세션, 아카이브 전시 등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입니다. 기록활동을 하는 시민들이 모여 서로의 활동을 선보이고 정보를 공유하는 이 축제를 통해 서울기록원은 시민과 함께하는 기록활동 허브 역할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온라인 시민기록문화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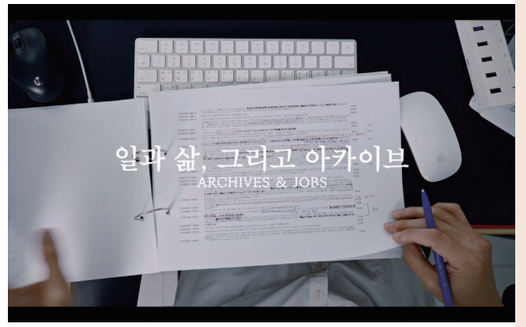
SMA 인터뷰 시리즈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시민기록문화 프로그램 '서울기록원 인터뷰 시리즈(SMA Interview Series)'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시리즈는 기록을 매개로 프로페셔널한 직업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Archives&Jobs〉와 저마다의 방식으로 서울을 기록하는 열정적인 활동가들의 이야기 〈서울을 기록하는 사람들〉 등 두 개의 시리즈로 구성됩니다. 서울기록원은 지속적으로 기록 교양 영상을 제작해 기록의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사회와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영상은 서울기록원 누리집과 소셜미디어, 동영상 공유 서비스 유튜브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상설전시

기억의 공간-한강과 서울

오는 9월부터 '기억의 공간-한강과 서울'을 주제로 새로운 상설전시가 열릴 예정입니다. '한강의 기적'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한강의 발전은 서울의 발전과 그 흐름을 함께해왔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루터와 다리 등 한강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지도, 사진, 영상을 비롯해 강변도로와 아파트 건설, 한강종합개발 등 서울 도시개발과 기반시설 건설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정기록, 대표적인 안식처로 자리잡은 한강에 대한 시민들의 기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찾아보기

찾아보기

p2
ⓒ서울기록원

p6~7
서울지하철 1호선 평면도
ⓒ서울기록원

p8
tbs 영상기록 '대중교통의 신기원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지하철 건설계획 발표 기자회견
ⓒ서울역사아카이브

p9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 설치 조례 제정
ⓒ서울기록원
서울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하고속철도 및 정차장) ⓒ서울기록원

p10
지하철 건설 정신
ⓒ(891230)지하철 1호선 건설지
서울지하철 착공식 박정희 대통령
참석 기념 연설 ⓒ국가기록원

p11
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 추진계획
ⓒ서울기록원
서울지하철 및 수도권 전철화사업을 위한
차관계약 ⓒ서울기록원
승차권의 변화 ⓒ서울교통공사

p12~13
서울지하철 1호선 공사 시청역 일원 공사 현장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지하철 1호선 건설 현장
ⓒ서울역사아카이브
부산항 전동차 반입 전경 ⓒ서울사진아카이브
서울지하철 1호선 개통 축하 현수막
ⓒ서울역사아카이브
서울지하철 1호선 전동차 내부와
승차권 구매 시민들 ⓒ서울교통공사

p14~15
인포그래픽
ⓒ서울교통공사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

p16~17
서울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 ⓒ김영수
서울시 교통 혼잡 상황 ⓒ서울교통공사
서울지하철 1호선 공사 현장 ⓒ서울교통공사

p18~19
서울지하철 1호선 공사 당시 동아일보
사옥 근처 급곡선 구간 ⓒ김영수
지하철 전기시스템과 절연구간
ⓒ위키미디어커먼스
문화재 보호를 위해 애쓴 숭례문 인근
서울지하철 공사 ⓒ서울교통공사
지하철의 미래를 그린 만화 ⓒ서울교통공사

p20~21
인포그래픽
ⓒ서울교통공사

p22~27
문화예술작품 포스터 및 사진
ⓒ한국영상자료원 KMDB

p30
서울지하철 사보 1985년 5월호 중
ⓒ서울교통공사

p31~33
〈사람의 곳으로부터〉 일부 ⓒ김수박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교통공사

p34~35
https://www.ltmuseum.co.uk/
collections/collections-online/maps/
item/1999-321
https://www.ltmuseum.co.uk/
collections
http://web.mta.info/
nyct/110Anniversary/subwayMaps.
htm
서울지하철 노선도 기록 ⓒ서울교통공사

p46~48
제헌의회 회의록
임시의정원 발표 영문 기록물
광복군 기록
임시의정원 관인
ⓒ국회기록보존소

p50
ⓒ서울사진아카이브

p53
SMA CATALOG BOOK Vol.1 도시계획
ⓒ서울기록원

p64
1996년 9월 30일 한강 메밀꽃 ⓒ서울시
광복 사진 ⓒ서울기록원

아카이브 서울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편집인 조영삼 서울기록원장

발행처 서울기록원

vol.3

발행일 2021.06.

제작부서 서울기록원 기록정책과

제작총괄 김은실 기록정책과장

제작담당 김희경 주무관

주소 서울 은평구 통일로62길 7

전화 02-350-5600

기획편집	디자인	인쇄
P&WG손	김해정	㈜SJC성전

archives.seoul.go.kr

©2021. 서울특별시
본 제작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습니다.

ISSN 2636-0764 03

행정 821-0041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07-10

COVER STORY

1974년 3월 28일 일본에서 들여온 지하철 1호선 전동차를 하역하고 있는 부산항 현장 모습이다.
소장처 서울기록원

발간등록번호
51-6113815-000007-10



서울기록원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62길 7 | 02-350-5600 | archives.seoul.go.kr

행정 821-0041
ISSN 2636-0764 03